

黃眞伊時調研究

朴 榮 完 *

目	次
I. 緒 論	1. 戲戀의 熱情 (사랑辭)
II. 本 論	— 艶情歌①②③, 慕情歌④ —
A. 黃眞傳考究	2. 遊女의 詠觀 (清流辭)
1. 黃眞과 誕生說話	— 誘惑歌⑤, 別離歌 ⑥ —
2. 黃眞의 青春遊情	C. 黃眞愛情論
3. 黃眞과 佳人薄命	III. 結 論
B. 黃眞時調論 (六)	參考文獻

I. 緒 論

韓國古代女性史는 한결같은 忍苦와 悲嘆과 窮乏으로 워어진 痛恨과 哀憐의 歷史이었으며, 그 底流에 흐르는 것은 恒常 桎梏과 忍從만을 爲한 窒息할듯한 沈黙과 間斷없는 기다림속에서 惟獨 女性만이 當해야하는 懊惱와 그리고, 찢어질듯 가난한 貧寒에서 오는 안타까움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나라 歷史의 暗澹한 그늘속에 묻혀 이름없이 살다간 李朝의 女人들—그들 女性 人口가 文化創造의 折半을 占有하는 데에도— 특히 近世 朝鮮朝, 그래도 才致 있는 女性들은 教男而不教女¹⁾(女子에게는 一切 制度的으로 學問修得의 機會가 全히 없었음) 라는, 그러한 嚴格한 儒敎的 社會環境속에서도 訓學하는 父兄들의 등뒤에 숨어서 眞書를 익혔고, 글공부가 그래도 勝於男하여 뛰어난 才能으로 文學藝術 分野에서 不朽의 名作을 남긴 事例가 許多하였다. 우리나라 女性 特有的 끈질긴 忍耐의 性情을 바탕으로 多情多感하게 반

* 漢文學專攻, 助教授

1) 星湖·李翼, 星湖傳說, 卷三(人事門), 婦人之敬; 一讀書講義是大丈夫事 婦人有朝夕寒暑之供 鬼神賓客之奉 采段對卷諷誦哉·黃在君, 許景樊과 黃眞娘 詩의 對蹠의 世界, 明知語文學, 第 14 號(1982. 12. 30) p. 102 朱子學의 家父長的 父權에 짓눌린 狀況에서, 朝鮮朝 一般女性은 學問을 하거나 詩歌를 創作할 겨를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內訓에 依한 家禮之道— 길쌈·紡績이나 事舅姑, 君子, 育兒, 奉祀, 接客의 律에 專念할 뿐이었다.

작이는 抒情의 女性의 無限한 情緒가 흘러넘쳐 古代女性들의 漢詩文學이나 時調文學으로 創作된 嶄新한 文學作品이, 相當數 있었으면서도 단지 女性이 創作하였다는 羞愧感 때문에 떳떳하게 世上에 내어 놓지를 못했고, 世上에 내어 놓았어도 文獻上으로 記錄되어 保全함이 稀少한 가운데에서도 널리 人口에 膾炙되고 너무나도 出衆하여 後世에 길이 남아 오늘 날 그 빛나는 文學藝術的 芳名을 流轉하여 떨치는 李朝女流作家들로 松都妓·黃眞伊, 扶安妓·李梅窓, 晉州妓·勝二喬, 長城妓·翠仙, 定平妓·峯蓮, 花山妓·梅鶴 그리고 色鄕으로 有名한 西京의 平壤妓·桂月과 小紅, 이들은 이른바 韓國 妓女文學의 紀念碑的 存在者들이고, 孝宗~顯宗 年間に 安東 權氏家에 婢女 擘玄은 비록 賤女의 값없는 女子身分이었지만 詩文에 뛰어난 才質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賤妾 小室의 몸으로 文筆을 자랑한 이는 李蓬의 擘女로 趙瑗의 小妾이었던 李玉峯, 그리고 楊士奇(楊士彦의 弟)의 小室과 武家之女로, 金盛達의 小妾이었던 李氏, 肅宗時人 洪舜衍의 小妾이었던 雲楚·金芙蓉堂, 純祖~哲宗 年間に 徐箕轉의 副室이었던 朴詩竹西, 高宗時人 襲文典의 小室이었던 姜只在堂 等等이 이름났으며, 百花堂夫人, 小玉花, 所聞이 藉藉했던 女난봉 於于同도 빼놓을 수는 없는 有名女流詩藝人으로 詩文에 能爛한 才媛들이었음은 우리 모두 周知의 事實이다.

이제, 點잖은 正室夫人 閨秀作家들로 尊敬받는 李朝 一流名藝人들을 들어보면, 宣祖朝에서 舊韓末 사이에 猛活躍한 이들로 宗室 肅川令夫人 水壹堂·李氏, 兪汝丹夫人 林碧堂·金氏, 崔瑯夫人 成氏, 柳希春夫人 宋氏, 李元秀夫人 師任堂·申氏, 金誠立夫人 蘭雪軒·許氏, 蓬原夫人 鄭氏, 申純一夫人 李氏, 李時明夫人 張氏, 李搢夫人 沈氏, 申光裕夫人 允摯堂·林氏, 河況夫人 三宜堂·金氏, 洪仁謨夫人 令壽閣·徐氏, 沈宜夔夫人 幽閑堂·洪氏, 尹光演夫人 靜一堂·姜氏와 南九萬의 後孫女이며 南世元之女인 貞一軒·南氏 그리고 吳時善之女로 尹明殷의 夫人이었던 吳小坡女史 等等 韓國 閨秀文學의 찬란한 女流群星들의 名人單이 있다. 그 中에서도 妓女群의 才藝人으로서는 黃眞伊·李梅窓이 第一의 旗手이며, 小室群의 才子佳人으로는 李玉峯이 斷然 으뜸이고, 擘玄은 賤女群을 代表하는 理想의 별빛이었으며, 閨秀群속에 卓越한 精銳作家로는 許蘭雪軒·申師任堂을 들지 아니 할 수가 없다.²⁾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韓國 妓女文學의 旗手 妓女作家 黃眞伊와 韓國 閨秀文學의 精髓 閨秀作家 許蘭雪軒과는 서로 다른 詩文學의 樣相을 보여 준다.

다같은 女性文學者로서 女性다운 纖細한 가락으로 愛情을 主題(theme)로 노래하는 것 같은 愛情詩이면서도 그 女들의 詩文學世界에는 顯隔한 差異(社會的 身分과 詩想的 露出의 對峙)의 方法때문에 極對의 性格)가 있는 것이다.

眞娘(黃眞伊 - 筆者註)은 貧賤의 身分으로 出生해서 平生을 自由女人(妓女)으로 살다가 生沒年代도 알 수 없이 散華되었고, 또 그는 詩를 ‘어떤 目的을 위한 道具의 意味’로 본 데 比하여, 景樊(許蘭雪軒 - 筆者註)은 富裕한 名門에 出生하여 朱子主義의 굴레에 매인 生活로 지냈으며, 또 그의 詩想 露出의 視線은 詩를 ‘自然物처럼 存在 自體의 意味’

2) 朴榮完, 師任堂漢詩歌論, 關大論文集, 第10輯(1982.1.15) p. 62.

로 본 것이다.³⁾

이렇듯, 서로 다른 詩文學 世界에 살다간 그 女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16世紀 近世 朝鮮朝의 이들 두 女流詩人의 詩情은 참으로 眞率하고 巍巍한 바, 定評있는 女性文士들임에 틀림이 없다.

過去 우리나라 李朝女流文學의 特色⁴⁾은

첫째, 作家들의 大部分이 妓女身分이었고, 둘째, 그 妓女들의 折半 以上이 實際로 生存 年代조차 알 수 없을 程度로 忘却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黃眞伊의 境遇도 例外는 아니어서, 이러한 우리나라 李朝女流文學의 特色에서 벗어 났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첫째로, 黃眞伊 그녀 自身の 作家身分이 松都(開城)의 名妓⁵⁾라는 點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둘째로, 黃眞伊의 生沒年代 또한 다만 ‘嘉靖初’(本論考 Ⅱ項 A. 黃眞傳考究 1. 黃眞의 誕生說話 - 欄에서 그 女의 出生과 死沒에 관한 年代 推定을 詳論하겠지만)라는 簡單한 記錄이 보일뿐 典據의 堙滅과 疎出함 때문에 黃眞伊의 傳記는 그 女의 傳記的 事實은 勿論, 그녀의 人間的인 位置조차도 曖昧模糊하여 理想化의 煙霧에 휩싸여⁶⁾ 眞情한 實狀을 알아 보기 어렵고, 또 零碎하나마 傳來하는 典據의 記錄을 가지고는 그 眞僞를 가리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現傳하는 그녀의 傳記속에는 相當部分 보다 많은 虛無孟浪한 野談의 要素가 섞여 적잖은 虛構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치 古代의 神話나 傳說처럼 神秘化 傾向이 濃厚해진 感이 매우 짙다. 이것은 바로 黃眞伊 그녀 自身이 하찮은 賤女 妓生의 身分이면서도 드물게 보는 才色兼備의 才子佳人⁷⁾이었다는 點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分명한 것은 그녀도 歷史上에 實存했던 實在人物인 다음에는 神話나 傳說속에 麗人으로서 그냥 내버려 두어 묻어 버릴 일이 아니라 嚴然한 한 實存女人으로서의 “人間 黃眞伊”의 實像을 찾아 내야만 하리라고 믿어진다. 적어도 「黃眞伊」에 關한 한 모든 것 - , 假令 이를테면 黃眞伊의 絶唱과 才色도, 黃眞伊의 名筆과 文學도, 黃眞伊의 詩歌와 音律도 —— 을 찾아 내야만 하리라고 믿는다.

黃眞伊, 그녀는 어쩌면 兩班家와 良家의 閨閣집 閨秀女人들이 三從之禮와 內訓에 얽매어 不自由한 生活을 하는 것을 보고 男女가 平等하지 못한 社會構造에 反撥的인 厭症을 느낀 나머지 오히려 反撥心理의 反作用으로 花柳界 妓女의 길을 스스로 選擇했는지도 모를 일이

3) 黃在君, 許景樊과 黃眞娘詩의 對照的 世界, 明知語文學, 第 14 號 (1982. 12. 30) p. 103.

4) 李能雨, 李朝女流作品의 特殊性, 現代文學, 通卷 第 7 號 (1955. 7. 1) pp. 192-195.

金用淑, 李朝女流文學의 特質, 亞細亞女性研究, 第 14 輯 (1975. 12) pp. 24-41.

5) 於于堂·柳夢寅, 於于野談(野談說話集); 一嘉靖初 松都名妓 有眞伊者. / 松都留守 金履載 編, 中京誌; 一黃眞 名妓也. / 蛟山·許筠, 識小錄; 一松京娼女 眞娘. / 竹泉·李德洞, 松都紀異; 一松都名娼也.

6)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p. 257.

7) 竹泉·李德洞, 松都紀異; 一色貌才藝 絶妙一時 歌亦絶唱 人稱仙女.

다. 그래도 妓女의 身分에는 奢侈奴隸로서 兩班官僚 男丁네들의 愛玩物로 路柳墻花일 망정 男女社交場의 마당에서 當代에 내노라하는 兩班官僚의 高級階層의 風流男性들을 相對하여 酒宴에서 酬酌의 自由로움은 勿論, 그 媒體가 바로 妓流들의 詩歌文學이었으니, 花柳界의 아름다운 꽃(花中之花)으로 君臨했던 아름다운 우리의 黃眞伊, 그가 바로 絶唱 絶色 兼全의 詩歌人으로, 多情多恨한 愛情文學의 꽃을 피운 - 버림 받고 흐느끼는 諦念·絶望·孤獨, 그리고도 …… 略 …… 허물하지 않는 戀慕·寬容, 그리고 忍耐하는 纖細한 感情⁸⁾인 - 것이다.

筆者는 이에 李朝女流文學을 代辯하는 獨步的 妓女作家的 詩歌論 『黃眞伊時調研究』를 通하여 李朝時代의 妓女들이 그토록 渴望하던 사랑의 現實世界와 그 못다한 사랑을 實現시키는 文學作品의 哀切한 世界를 探索考究해 보려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기도 하다. 또한, 本論考는 「韓國女流漢文學研究」의 一個 各論의 形式과 分量을 取한 것으로 『申師任堂文學研究』(1978)에 이어 두번째의 것이며, 將次 本格的으로 試圖될 ‘韓國女流漢文學’의 綜合的 研究를 爲한 作品 分析過程에 있어서의 一段의 努力인 셈이며, 黃眞伊 그녀의 愛情詩를 正確히 理解하는 鑑賞의 教範을 삼고자 하는 데에도 意義가 있다. 本 研究를 展開함에 있어서 먼저 緒論에서는 概略的인 韓國女流文學의 活動狀況을 알아 보고 나서 妓流藝人 黃眞伊의 愛情과 文學的 特性을 살피고 이어 本論에서는 黃眞伊文學의 全部를 理解하는 데에 諸般 基底가 되고 있는 그녀의 生涯와 交遊와 臨終으로 나뉘어 黃眞伊小傳을 整理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 女의 學問과 思想과 愛情觀과 文學觀에 接近하고자 現傳하는 總13篇⁹⁾(漢詩 七首와 時調 六首)의 文學作品을 分析하여 時調文學은 ‘戲戀의 熱情’(本論考에서 다룸)으로 그리고, 漢詩文學은 ‘別恨의 哀章’(別稿로 다룸 豫定임)으로 各各 그 文學的 特徵을 잡았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黃眞伊 그 女의 嶄新한 詩風과 人間의 面貌를 定立하고, 作品속에서의 愛情의 本質과 文學概論을 끝으로 結論을 맺기로 하였다.

II. 本 論

絶世의 名唱 松都妓 黃眞伊의 이름은, 脚光받던 너무나도 有名한 女人으로 歷史의 흐름

8) 趙雲濟, 黃眞伊의 詩調와 韓國詩歌의 傳統, 國語國文學, 第41輯(1968. 9. 30) p. 113.

9) 傳來하는 文獻마다 한 두首 作品數의 差異를 보이나, ○ 金智勇 譯, 歷代女流漢詩文選(韓國名著 大全集), (서울: 大洋書籍, 1975. 9. 15) pp. 67-69. 에 의하면, ① 別金慶元 / ② 詠半月 / ③ 送別蘇陽谷 / ④ 滿月臺懷古 / ⑤ 朴淵 / ⑥ 松都 / ⑦ 奉別蘇判書世讓 等 漢詩作品 七首가 있고, ○ 鄭炳昱 編, 時調文學事典(서울; 新丘文化社, 1966. 10. 10)에 의하면, ① (434) 내언제 p. 109 / ② (672) 冬至人들 p. 165 / ③ (1050) 山은 뱃山 p. 252 / ④ (1427) 어저 내일이야 p. 336 / ⑤ (2056) 靑山裏 碧溪水 | 야 p. 482 / ⑥ (2063) 靑山은 내뜻이오 p. 483 等 時調作品 六首가 그 全部임.

을 타고, 後世에 널리 알려져 오늘날에 傳한다. 그런데, 그것은 歷史上에 儼然이 살아 實存했던 李朝時代의 한 妓女作家로서의 實在的인 黃眞伊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點이다. 오늘날 巷間에 널리 流布되고 있는 野談의 黃眞伊傳記의 稗說類¹⁰⁾의 大部分은 그녀의 奇異한 出生譚으로부터 始作해서, 그녀의 青春을 불질러 버렸던 華麗한 愛情行脚을 거쳐, 그녀가 最後의 一言으로 마지막 남기고 간 臨終時의 남다른 言行的 記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神秘한 베일 (veil) 속에 쌓인 傳說속의 女主人公으로 登場한다.

黃眞伊의 傳記는 그 女의 傳記의 史實은 勿論 人間의인 位置(生沒年代)조차 제대로 把握되지 못한 채, 煙霧로 피는 안개꽃으로 理想化되어 都是 五里霧中의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다.

우리는 韓國文學속의 한 章으로서 取扱되어질 黃眞伊文學의 올바른 理解를 爲해서라도 黃眞伊의 眞面目을 究明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爲해서는 먼저 虛無孟浪한 野談的 要素가 內包되어 있는 黃眞伊傳記의 非寫實的인 虛構性부터 털어내고, 그녀에 關한 모든 殘存 文獻의 傳記類를 相互比較 分析檢討하여 眞僞의 虛와 實을 가리기 爲해서라도, 史料의 記錄의 文面에 스며있는 眞意를 새롭게 考察해 보아야 하리라고 믿는다.

黃進士의 庶女라느니, 或은 盲人의 딸이라느니하여 出生조차 確實치 않은 두가지 異說을 通하여 우리가 確實히 感知할 수 있는 것은 그 女가 私生兒라는 分명한 事實이다.

黃眞伊 그 女가 그런 몇몇지 못한 賤人階級의 身分出身이었다는 現實的인 信憑性을 摸索한다면, 黃眞伊는 盲人女子 陳玄琴 - 絃首의 딸이고, 陳玄琴 絃首가 音曲을 演唱하면서 兩班들의 宴席에서 술자리를 같이했던 만큼 某種의 隱密한 關係를 지레 認證하여 黃眞伊를 黃進士의 庶女라고 誇張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黃眞伊의 어머니나 或은 아버지나가 다 陳(秀)福이라는 衙前의 側近이었다는 事實만은, 信憑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陳玄琴- 絃首와 黃眞伊, - 그들 母女의 宿命的인 이름인 玄琴- 絃首는 伽倻琴 絃(絃)을 잘타던 首座(수자리)의 女人이었다는 데에서 起因하는 것만 같고, 黃眞伊의 眞字 또한 陳姓과 무슨 關聯이 있는 것으로만 보여진다.¹¹⁾ 또한, 野談類에 보이는 바 黃眞伊가 自進해서 妓籍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黃眞伊가 黃進士의 庶女로 되어 있으나, 黃眞伊의 親母가 妓女이었다면 黃進士의 贖身을 하지 않는 境遇에는 그녀는 賤者從母法¹²⁾에 따라 妓生이 될 수 밖에는 없다. 또, 黃眞伊가 陳吏胥의 近族 親戚이라고 하였는

10) 惺翁 識小錄(許筠). 於野談(柳夢寅), 松都紀異(李德洞), 錦溪筆談(黃俊良), 中京誌(金履載), 朝野彙言, 韶護堂集, 其他 漫錄 等等

11) 呂文社 編, 韓國의 人物, (서울: 呂文社, 1972) p. 595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p. 259

12) 金東旭, 李朝妓女史序說, 亞細亞女性研究, 第5輯(1966. 12. 30) p. 83 再引

○ 太宗 13年 8月 到「干尺白冠等女人孫立役」의 法을 定하고, 議政府上尺天白冠等女人孫立役之法啓曰 其在前朝身役賤者 唯琴天之女 定爲妓役 其餘皆無役 國初屬司宰監身良水軍之女 皆不定役 乞以干

데 이 境遇에도 陳吏의 妓妾의 所生女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¹³⁾

人間 黃眞伊, 그녀가 屬했던 妓女社會에 對한 幅넓은 理解도 그녀의 참모습을 찾아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은 當然한 일이다. 黃眞伊, -그녀는 妓生이라는 自己 職業에 어느 누구보다도 充實했던 한 女人이다. 後世上人들에게 奇異하게만 느껴져 온 그의 모든 奇異한 行蹟도 結局은 賤人階級の 妓女치고는 너무도 드물게 보는 才色兼備의 아릿다운 女性으로 理想的 境地를 산 것때문에 마땅히 그럴 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當爲性에는 누구나 充分한 認定이 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이렇듯 黃眞伊傳記의 非寫實的인 虛構性的 歷史文獻的 史料들이 潤色되어질 수 밖에 없었던 決定的인 事由가 무엇이었는가가 人間 黃眞伊의 참모습을 究明할 수 있는 關鍵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A. 黃眞傳考究

黃眞伊는 李朝 第11代 中宗 (1488, 在位 1506-1544) 朝때¹⁴⁾ 開城(松都) 官妓界에서 活躍한 詩·書·律 三全의 色藝兼備한 松都의 名唱名妓¹⁵⁾였다. 黃眞伊의 本名은 眞-珍伊 → 眞伊, 또는 眞娘이라고도 부르고, 妓名으로 두루 부리워지던 그녀의 字는 明月이었다. 竹泉·李德洞의 「松都紀異」¹⁶⁾에는,

尺白冠等人女孫自壬辰年受教以後 徒良者依前朝判定百姓例立役徒之。(V. 26. p. 19)

○ 太宗 14年 正月에 이르러 「婢妾所產限品贖身」의 法을 定하였다. 己卯定婢妾限品贖身之法 司宰監報議政府曰 身良水軍女孫定役何如 議政府曰曰 中國禮義所自出婚姻之禮正以陰從陽女歸男家 生子及子孫長於內 家人知本宗之重 父良者皆良 吾東方典章文物皆法中國 唯婚姻之禮 尙循舊俗 以陰從陰 男歸女家 生子及孫長於外 家人不知本宗之重 母賤者皆賤 至以祖父骨肉稱爲婢妾所產皆役使 其不知輕重甚矣 至我國朝太祖以諸人自己婢妾所產爲身良役賤屬 司宰監水軍不許并鬻其女 今司宰監欲役女孫前朝之制 身良役賤者皆不役其女孫 丁吏馬天吏之女嫁良夫即爲良人 嫁同類乃立其役 贖于律尺之女亦同 水軍女孫宜與干尺之女同 因切惟念 各司奴隸 父母具賤者尙蒙限品之職 幸以勳舊之臣婢妾所出 隸於尙衣院上林園 擇其識字開通者俾充限品之職何如 命曰二品以上自己婢妾之子永許爲良限五品 今後公私賤妾許令以自己婢子贖身 其所生之子依上項例 丁丑年已後於良於賤 文契不明 充水軍女孫外 自己婢妾所生屬司宰監者女孫永充水軍 (V.27. 1.B-2A 13) 上揭同論文 p. 83.

14) 黃眞伊의 生沒年代는 明確한 記錄이 없다. 다만, 中宗朝人(韶護堂集), 嘉靖初(於于野談) 등의 記錄이 보일뿐, 黃眞伊 그 女가 花潭·徐敬德과 陽谷·蘇世讓과 白湖·林悌 等과 親交를 맺었던 事實로 미루어 보아, 두가지, 李朝 第11代 中宗 (1506-1544) 朝 活躍說과 第12代 仁宗(在位 8個月) 代를 거쳐 第13代 明宗 (1545-1567) 朝 活躍說로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15) 松都留守 金履載, 中景誌; -黃眞名妓也. / 於于堂·柳夢寅, 於于野談; -松都名妓有眞伊者. / 蛟山·許筠, 惺翁識小錄; -松京娼女眞娘. / 竹泉·李德洞, 松都紀異; -松都名唱也.

16) 竹泉·李德洞은 李朝 第14代 宣祖 23年 (1590, 庚寅)에 進士하고, 同王 29年 (1601, 辛丑)에 文科에 及弟하여 宣祖 37年 (1604, 甲辰)에 開城留守로 赴任하여 가서 그곳 官衙의 陳秀福이라는 衙前의 老父 陳吏에게서 黃眞伊의 이야기를 듣고 竹泉·李德洞이 「松都紀異」에 적었다고 傳한다.

色貌才藝 絶妙一時 歌亦絶唱 人稱仙女.

라고 적고 있는데, 實로 그녀에 關해서는 傳記的 事實조차도 神秘化되어 있다. 黃眞伊의 出産부터가 奇異하기 짝이없는 일이다. 黃眞伊의 出生에 關한 現存하는 傳記的 記錄은 두 가지 樣相 - 黃進士之庶女出生說¹⁷⁾ 과 盲人(女)之子出生說¹⁸⁾ 으로 나타난다.

1. 黃眞과 誕生說話

黃眞伊는 黃某進士의 庶女로 태어난다.

어머니는 陳玄琴이라 했다.

黃眞伊의 어머니 玄琴은 자못 姿色이 고왔다. 處女 꽃같은 나이 18 歲때에 開城 兵部橋 아래에서 삼배를 빨고 있었는데, 다리 위에서 形容이 端好하고, 衣冠이 華美한 한 男子가 그 女를 눈여겨 바라보며 웃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해 보이니 그 女의 마음이 자연히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다. 갑자기 그 男子는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해가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질 무렵 빨래하던 다른 女子들이 모두 흩어져 버리자 忽然히 다리밧에 다시금 나타나서 다리 기둥에 依支하여 서서 長歌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男子는 부르던 노래를 마치자, 마실 물을 달라고 請했다. 玄琴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떠서 건네 주었다. 그 男子는 물을 받아 반쯤 마시더니 웃으면서 마시던 물을 되돌려 주었다. 그녀더러도 마셔 보라고 勤했다. 玄琴도 그 물을 받아서 마셔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고 술이었다. 놀라서 異常히 여기고 이내 이에 두 사람의 사이에서 드디어 眞娘이 태어났다.¹⁹⁾ (筆者意譯)

大概是 위에서와 같은 序頭로 이야기가 始作되나, 若干씩 다른 이야기를 덧붙인 것도 있다.

(黃眞伊의 어머니는 陳玄琴이었는데, 兵部橋 다리밧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한 美麗한 少年이 있어서 弄談을 걸고 갔다가, 해질 무렵에 또다시 와서 물을 떠 달라기에 물을 떠 주고, 그와 함께 마시니, 물이 변하여 술이 되었다. 함께 기쁨을 나누었는데) 그 뒤 그 少年은 自己의 이름도 알려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 이는 뜻밖에도 仙人이었다. 果然 妊娠을 하여 黃眞伊

17) 竹泉·李德洞의 「松都紀異」, 松都留守 金履載의 「中宗誌」, 滄江·金澤榮의 「崧都舊傳」等

18) 蛟山·許筠의 惺翁 「識小錄」, 「朝野彙言」(卷之三)等

19) 竹泉·李德洞, 松都紀異; 一母玄琴 頗有姿色 年十八 浣布於兵部橋下 橋上有一人 形容端妙 衣冠華美 注目玄琴或笑或指 玄琴亦心動 其人仍忍不見日已向夕 漂女盡散 其人俟來橋上 倚柱長歌 歌意水飲 玄琴以瓢盛水面進 其人半飲笑而還與曰 汝且試飲之 乃酒也 玄琴驚異之 因與講歌 遂生眞娘(原來 이 冊에는 男子의 身分이 進士라는 記錄은 없다. 金澤榮의 「韶護堂集」에 그가 黃進士의 庶女라는 記錄이 보이고, 開城官女之子라는 記錄은 惺惺翁으로 自處하던 許筠의 「識小錄」에 적혀있는 것이다)

를 낳을 때, 異常한 香氣가 產室안에 가득차서 三日동안 가시지를 안았으니, 곧 이것은 仙女인지라 어찌 黃아무개라는 人間의 姓을 따르겠는가. 20) (筆者意譯)

黃進士의 庶女이니, 進士의 妾이 陳玄琴이었다. 陳玄琴이 兵部橋 다리아래서 물을 마시고, 感激한 나머지 妊娠하여 黃眞伊를 배었는 데, 그녀가 居處하는 室內에는 三日間 異常한 香氣가 머물러 있었다. 21) (筆者意譯)

以上 위에서 본 바, ‘黃進士之庶女系出生說話’와는 正反對로 이 番에는 黃眞伊가 “盲(女)人之子系出生說話”로 나타나는 것을 보겠다.

어머니의 이름은 絃首라 했다.

黃眞伊 곧, 眞娘은 開城 盲[●]人의 子息이다. 22) (筆者傍點譯)

黃眞伊 곧, 眞娘은 開城 盲[●]女의 子息이다. 23) (筆者傍點譯)

以上 두가지 - 黃進士之庶女系出生說話와 盲人(女)之子系出生說話 - 黃眞伊의 出生譚說話를 두고 엇갈리는 相反된 記錄의 實例를 綜合해 보면, 黃眞伊를 黃進士의 庶女系 出生으로 다루고 있는 記錄이 盲人의 子息系 出生으로 다루고 있는 것보다 많은 데, 이것은 숫자보다도 그 文獻的 記錄의 信憑性이 問題가 될 것이다. 滄江·金澤榮의 「松陽耆舊傳」은 舊韓末에 編纂된 冊이라 아주 信憑性이 稀薄할 뿐만 아니라 黃眞伊의 親母로 나타나는 陳玄琴의 相對者의 男性存在마저도 無視해 버린 채 黃眞伊를 낳을 때 무슨 “香氣가 房안에 가득하였다.” (座時異香滿室)느니, 사람들이 黃眞伊를 무슨 “仙女라고 불렀다.” (人號爲仙女)느니, 무슨 “물이 술이되었다” (水化爲酒)느니, “性的 交歡의 合歡酒였다”느니 하여 黃眞伊의 出生譚을 무슨 神話나 傳說的인 이야기처럼 다루고 있는 데 反하여, 그래도 蛟山·許筠의 惺翁 「識小錄」이나, 「朝野彙言」(卷六三)은 그 記錄의 上昇 年代 하나만 가지고도 보다 事實에 가까운 信憑性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筆者는 “盲[●]人之子”(識小錄)의 ‘盲人’이라는 表現은 父系(?) 出生說을 말하여 곧 黃眞伊의 아버지가 盲人이었다는 것이고, “盲[●]女之子”(朝野彙言)의 ‘盲女’라는 表現은 곧 母系(?) 出生說을 意味하여 黃眞伊의 어머니가 盲人女子였다는 새롭게 엇갈리는 主張을 試圖해 보면서 안개속에 가리워진 채, 아리송하게만 떠오르는 黃眞伊의 生沒年代를 追跡해 보기로 하겠다.

官妓女 黃眞伊의 生存年代를 그나마도 記錄하고 있는 文獻으로는 두가지 典籍 밖에는 없

20) 松都留守 金履載 編, 中宗誌; - 眞之母 陳玄琴 浣紗於兵部橋下 - 有少年 嬉謔而去 薄暮又來 請水 玄琴固與之 水化爲酒 仍成公歡 扛其姓名不告而去 意以爲仙人 果有娠生眞 產時 異香滿室 三日不再齋之則是仙女 有何姓黃耶.

21) 滄江·金澤榮, 松陽耆舊傳; - 黃進士庶女也 進士妾曰 陳玄琴 陳玄琴飲水於兵部橋下感而孕眞 乃舉室中 如有異香三日.

22) 蛟山·許筠, 惺翁識小錄; - 眞娘開城盲[●]人之子. (筆者傍點註一父系?)

23) 朝野彙言(卷之三); - 眞娘開城盲[●]女之子. (筆者傍點註一母系?)

다. “嘉靖初”²⁴⁾라고 적혀 있는 것은 於于堂·柳夢寅(1559-1623)이 지은 『於于野談』에 있는 記錄이고, “恭憲王朝”²⁵⁾時代라고 적고 있는 것은 蛟山·許筠(1569-1618)이 지은 惺翁 『識小錄』에 있는 記錄인데, 이들 두 典據의 冊子是 모두 그 編纂年代가 壬辰倭亂以後에 編述되었다는 點을 勘案하면 “嘉靖初”나, “恭憲王朝”代라고 하는 記錄은 벌써 50餘年 뒤 半世紀 後의 일이 된다. 그러나, 官妓女 黃眞伊에 對한 여러가지 傳記 중, 가장 오래된 것이 惺翁²⁶⁾의 『識小錄』(許筠)인 데, 그 最後의 版本이 李朝 第15代 光海君 3年(1611, 辛亥)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이 良齊의 「於于野談」(柳夢寅)인데, 이것은 光海君 12年(1620, 庚申)에 編纂된 것이다. 이 良齊의 「於于野談」(說話集)은 谿谷·張維(1587-1638)의 「谿谷漫筆」에서 “極히 그 글이 鄙陋하고 史實을 잃었다.”²⁷⁾고 酷評을 받기는 했으나, 「於于野談」이 作者 柳夢寅²⁸⁾의 生前에 刊行되었다는 事實로 보아 어느 程度 信憑性이 있다²⁹⁾고 하겠다.

한편, 官妓女 黃眞伊와 直接 交分을 맺고 通情이 있었다는 當代的 名士級으로 花潭·徐敬德(1489-1546)과 陽谷·蘇世讓(1486-1562)이 있다. 그러나, 그들 自身들의 文集³⁰⁾에는 黃眞伊에 對한 何等의 言及이 없으니, 直接的인 資料는 되지 못한다고 보겠다. 그 밖에 黃眞伊의 名唱 時調作品,

24) 嘉靖은 中國 明나라의 年號이다.

嘉靖 1年은 李朝 第11代 王朝 中宗 17年(1522, 壬午)에 該當되고, 嘉靖 末年은 李朝 第13代 王朝 明宗 20年(1565, 乙丑)에 各各 該當된다.

“……嘉靖初, 松都名妓有眞伊者…….”(筆者傍點)

25) 恭憲王朝는 李朝 第11代 中宗朝를 가리키는 것이니, 中宗 元年은 中國 明나라 正德 1年(1506, 丙寅)이며, 中宗 末年은 明나라 嘉靖 23年(1544, 甲辰)에 各各 該當된다.

“恭憲王朝, 有士人李彥邦者——中略——松京娼眞伊 開其善唱來訪其家……”(筆者傍點)

26) 許筠(1569-1618)의 字는 端甫, 號는 蛟山 或은 惺所, 別號는 日月居士로 光海朝人이다.

花潭·徐敬德의 高弟인 許日暉의 第參子로 當代的 文章家들인 許篈은 兄이었으며, 許蘭雪軒은 누이었다. 社會革命에 뜻을 두고 河仁俊·沈友英 등과 謀議하다가 事전에 發覺되어 誅殺 當함. 그의 改革思想을 反映한 國文小說 「洪吉童傳」은 名作이다. 또한 詩文集으로 「惺所覆韻藁」가 있다.

27)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p. 270

오늘날 그 初刊本을 볼 수가 없고 廣史 第四集에 傳하는 것으로는 末尾에 「天啓元年 成汝學 繡梓跋」이라고 한 12卷이 傳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著者가 直接 刊行한 것이 아니고 成汝學이 上梓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이의 傳本은 대개 寫本으로 傳해지고 있다. 上掲同書, p. 270.

28) 柳夢寅(1559-1623)의 字는 應文 號는 於于堂 或은 良齊로 李朝 宣祖時人 文章家 官職은 史曹參判에 이름, 宣祖 22年(1589, 己丑)에 魁科하고 官界에 進出했으나, 放逸奇行으로 輕舉妄動하고 黨爭에서는 灰色主義者로 물려 仁祖反正 告變 後 陽州 西山에 隱身했으나, 마침내 그의 詩文 「老孀婦詞」가 禍根이 되어 誅殺됨. 「於于遺稿」와 「於于野談」을 남김. 正宗時 雪冤되다.

29) 金用淑, 黃眞伊, 人物韓國史(VI, 李朝 榮光의 星座), (서울: 博友社, 1965) p. 251

30) 花潭集과 陽谷集

青山裏 碧溪水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一到滄海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하니 수여간들 엇더리.³¹⁾

에, 나오는 碧溪守(=碧溪水)와 黃眞伊(=明月)와의 逸話³²⁾가 있으나, 宗室人이라고만 했을 뿐, 그 存在 實名이 確實치 않고, 黃眞伊를 두고 불렀다는, 白湖·林悌의 저 有名한 時調作品,

靑草 우거진 골에 자논다 누엿는다
紅顏은 어찌 두고 白骨만 무척논이
蘆子바 勸하리 업스니 그를 슬허 하노라³³⁾

31) 鄭炳昱編, 「時調文學事典」(서울:新丘文化社, 1966) p. 482 / 出典; 珍本靑丘永言(286) / 校注海東歌謠(崔南善本과 李熙昇本の 有氏名部 校合本, 132) / 崔南善本靑丘永言(984) / 古今歌曲(226) / 槐花樂府(260) / 雅樂部本(260) / 雅樂部本 女唱類聚(162) / 女唱歌謠錄(122) / 海東樂府(66) / 南薰太平歌(38) / 大東風雅(127) / 詩歌謠曲(61) / 奎章閣本歌曲源流(823) 등에 收錄되어 있는 黃眞伊의 名時調 1首.

32) 碧溪水는 碧溪守라는 李朝 宗室 一人의 이름이라고 傳하며, 明月은 두말할 것도 없이 黃眞伊 그 女 自身을 가리키는 妓名인 것이다. ‘海東小樂府’에 傳하는 漢譯詩를 보면; 一 靑山影裡碧溪水 / 容易東流爾莫誇 / 一到滄江難再見 / 且留明月日英娉婆로 되어 있다.

○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서울: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pp. 269-270 碧溪守와 黃眞伊의 逸話를 적은 「錦溪筆談」속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오는 事實이다.

「黃眞松京名妓也. 色藝俱絶 名播一國 宗室碧溪守者, 思欲一啜 而眞高自縲致 非風流名士不得親 乃謀於遜谷李達 ……」

위 引用에서 「李達」이 나오므로써 間接的이나마 한카닥 脈絡을 더듬을 수 있게 된다. 李達은 字는 「益之」 號는 遜谷이라 하여 宗室 雙梅堂의 庶裔로서 當代의 文章家였다. 그의 文集 「遜谷集」 序文에 許筠이 쓴 대목을 보면 許筠兄弟도 그에게서 詩를 배웠다고 한다. 따라서 그 속에 眞伊에 對한 直接 史料는 없다 할지라도 李達로 因하여 碧溪守의 實存如否가 確定되는 한 錦溪筆談의 位置도 어느 程度 確固하게 되는 것이다. 錦溪筆談은 編纂年代로 보아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平海人 黃俊良의 作이다. 그는 中宗 12年(1517. A.D)에서 35年 庚子科에 入弟하여 官은 牧使를 지내고 明宗 18年 癸亥(1563 A.D.)에 卒했으므로 「錦溪筆談」은 1563年 以前에 이루어진 것이 分明하다.

33) ○ 鄭炳昱, 「時調文學事典」(서울:新丘文化社, 1966) p. 488

○ 於于·柳夢寅, 於于野談; 一 今松都大路邊有眞伊塚 林子順爲平安評事 爲文發眞伊 卒被朝評(筆者傍點)

出典; 珍本靑丘永言(107) / 校注海東歌謠(崔南善本과 李熙昇本の 有氏名部 校合本, 96) / 海東樂譜(335) / 李熙昇本 靑丘永言(18) / 崔南善本 靑丘永言(123) / 雅樂部本 歌曲源流(327) / 崔南善本 歌曲源流(305) / 서울大學校本 歌曲源流(320) / 海東樂府(35) / 東歌選(63) / 奎章閣本 歌曲源流(326) 등에 收錄되어 있는 黃眞伊를 두고 읊은 白湖·林悌의 名時調 1首

에, 나오는 黃眞伊 무덤가의 致祭說³⁴⁾이 있으나, 林白湖(1549-1587), 그는 徐花潭(1489-1546)과 蘇陽谷(1486-1562)보다는 約 60餘年 後生이 되는 것이다. 徐花潭이 蘇陽谷보다는 滿 3年 後生이고 徐花潭이 蘇陽谷보다는 16年 먼저 卒去하였다. “嘉靖初”, 即 黃眞伊의 出生年代를 假定해서 적어도 嘉靖³⁵⁾ 2年(1525, 中宗 20, 乙酉) 즈음에 그 誕生說의 基準을 맞춘다 하더라도 黃眞伊의 꽃다운 青春時節 나이 16살 무렵의 芳年時代는 嘉靖 18年(1539, 中宗 34, 己亥)으로 이 때 徐花潭은 46歲, 蘇陽谷은 49歲 前後의 年齡이 되고, 黃眞伊의 盛名時代를 芳年 20歲 前後로 잡는다면 花潭·徐敬德의 나이는 50, 陽谷·蘇世讓 나이는 53歲 程度로 官妓女 黃眞伊와의 交分을 나눌 수 있는 年齡層³⁶⁾이 形成되지만 이들 死後 10餘年이나 後生인 林白湖의 境遇는 그 女의 나이 26歲에 이르던 嘉靖 28年(1549, 明宗 4, 己酉)에 비로소 出生하게 되고 嘉靖末(1565, 明宗 20, 乙丑)이면, 花無는 十日紅으로 黃眞伊의 나이 42歲로 妓女의 人氣가 衰落一路를 걷고 있을 때 林白湖의 나이는 겨우 16歲 前後로 黃眞伊가 죽은 뒤 平壤都事로 赴任해 가는 길에 松都(開城)를 지나면서 黃眞伊 墓前에서 울었다는 哀悼의 時調는 그녀의 名聲을 두고 부른 單純한 노래이지 黃眞伊 살아 生前 그녀와의 못잊는 情分을 두고 노래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黃眞伊와 林白湖 그들 사이의 極甚한 年齡差(約 30歲)가 바로 그것을 立證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間接的인 推測 資料이기는 하지만 黃眞伊 出生年代를 잡는데 指標가 될만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곧 바로 竹泉·李德洞³⁷⁾의 「松都紀異」가 바로 그것이다. 竹泉·李德洞은 宣祖 29年(1596, 丙申, 萬曆 24)文科에 及第者로 滿 8年 뒤인 同王 37年(1604, 甲辰, 萬曆 32)에 松都에 到任하여 陳(秀)福이라는 衙前의 老父 陳吏胥에게서 官妓女였던 黃眞伊의 이야기를 直接 듣고 이를 自己의 著述인 「松都紀異」傳에 담아 記錄했

34) 黃眞伊와 살아 生前에 交分이 있었던 白湖·林悌가 平壤都事로 赴任하러 가던 途中에 松都(開城)를 지나면서 黃眞伊의 무덤가에서 슬피 울었다고 傳함.

35) 中國 明나라 太祖 ① 洪武(高麗 辛昌王 元年, 1389 乙巳) 22年부터 始作하여 ② 建文 ③ 永樂, ④ 洪熙, ⑤ 宣德, ⑥ 正統, ⑦ 景泰, ⑧ 天順, ⑨ 成化, ⑩ 弘治, ⑪ 引治, ⑫ 正德, ⑬ 嘉靖, ⑭ 隆慶 ⑮ 萬曆, ⑯ 天啓, ⑰ 崇禎, ⑱ 順治, ⑲ 康熙, ⑳ 雍正, ㉑ 乾隆, ㉒ 嘉慶, ㉓ 道光, ㉔ 咸豐, ㉕ 同治, ㉖ 光緒, ㉗ 宣統 2年(李朝 純宗 4年, 1910 庚戌 韓日合邦)까지 使用되던 年號중에 하나로, 嘉靖 元年是 中宗 17年(1522, 壬午)이고, 嘉靖 末年是 明宗 20年(1565, 乙丑)에 該當된다.

36)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p. 273
“眞伊와 花潭과의 年齡의 差異는 15歲 以上 20歲의 距離를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推定說보다 10歲를 더한 筆者는 30歲 年齡差로 算定하였다.

37)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p. 270
李德洞(1566-1645)의 字는 遠伯 號는 竹泉이며, 宣祖 23年(1590 A.D)에 進士하고 宣祖 29年文科하고 同 37年(1604 A.D)에는 開城에 臨하여 老吏胥 陳秀福의 父에게 黃眞伊의 說話를 듣고 이를 記錄하여 그의 「松都紀異」속에 이 事實을 적게 된 것이다.

다고 傳한다.³⁸⁾ 그러므로, 煙霧속에 가려져 있는 黃眞伊의 出生年代를 가려 내는데 있어서 間接的인 傍證資料이기는 하지만 相當한 信憑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松都의 衙前 陳(秀)福의 老父 陳吏胥는 黃眞伊의 親母 陳玄琴과는 親戚之間³⁹⁾ 이라고 하였으며, 當時 官妓女 黃眞伊의 이야기를 口述하던 陳(秀)福의 老父 陳吏胥의 나이는 80歲⁴⁰⁾ 였다고 記傳(時八十餘 精神強健)하니, 竹泉·李德洞의 松都赴任 바로 그 첫해인 1604年에서 80年을 遡及 算除하면 陳吏胥가 世上에 태어난 것은 1524年(中宗 19, 嘉靖 3)으로 黃眞伊의 出生年으로 記錄되어 있는 “嘉靖初”(於于野談集)와 거의 書誌學的으로 보아 같은 時期의 同生者으로 確證이 잡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 -黃眞伊와 陳吏胥- 은 같은 때에 한 고장 - 松都 - 에서 나고 자라온 處地이므로 陳吏胥가 竹泉·李德洞에게 官妓女 黃眞伊의 이야기를 들려 줄 적마다 엇그저께 본 일처럼 歷歷히 말하였다(每說眞伊之事 歷歷如昨)고 竹泉의 「松都紀異」는 傳한다.

그런데, 金用淑님은 “이는 徐敬德이 58歲로 沒한 1546年(嘉靖 25)에 앞서기 22年이 된다. 即, 徐敬德이 58歲때 陳吏는 23歲, 그러나 年齡的으로 35~6歲의 差異가 있다. …… (中略) …… 即, 嘉靖初를 길게 잡아 嘉靖 10年으로 보더라도 徐敬德은 그 때 43歲, 그는 벼슬을 버리고 花潭에 隱居하여 文友 墨客들과 交遊하던 時代이다.

한편, 黃眞伊가 冊을 품에 품고 徐敬德을 찾아오던 때는 아무래도 30이 넘어 섰을 것이다. 꽃다운 青春의 愛情行脚도 끝나고 山川을 遊覽하고 어느 程度 人生의 意義를 求道하였을 때이니, 앞서의 記錄대로 그의 盛名時代를 嘉靖初로 보더라도 嘉靖 10年以後가 되는 것이다. 이 때 陳吏의 나이는 7~8歲, 黃眞伊와 徐敬德과의 交友가 몇 年이나 繼續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平生 徐敬德을 思慕했다는 記錄으로 보아 아마 짧은 期間은 아닌 듯, 10年 内外로 본대로 黃眞伊는 40未滿에 卒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陳吏는 10歲까지 黃眞伊를 볼 수 있었으니 그가 엇그제의 일같이 歷歷히 말했다는 「松都紀異」의 대목도 首肯이 가는 것이다.

要컨대, 黃眞伊의 生存年代는 위의 여러가지 考證에 依하여 大概 燕山君 末年頃(1502)에 나서 嘉靖初(中宗 17~8年頃)에 한창 꽃다운 盛名을 날리고 中宗 35年頃(1540)에 40未滿의 젊은 나이에 죽은 것으로 推測되는 것이다.”⁴¹⁾ 고, 말하여 筆者와는 달리 “嘉靖初”

38) 松都留守 金履載, 中宗誌; - 竹泉留守 李公德炳之號 而莅府時間其事於陳吏(筆者傍點)

39), 40) 竹泉·李德洞, 松都紀異; - 餘甲辰年 爲御史於本府 纔經兵火 公廩蕩然 館余於南門內書吏陳福家 福之父亦老吏也 與眞娘爲近族 時八十餘 精神強健 每說眞娘之事 歷歷如昨(筆者傍點)

40)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p. 273.

眞伊와 陳吏는 大略 25, 6歲의 差異가 있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筆者와의 異見 參照)

41) 金用淑, 黃眞伊, 人物韓國史(Ⅲ, 李朝 榮光의 星座), (서울: 博友社, 1965) p. 252.

筆者의 異見은 金用淑님의 말대로 陳吏胥의 나이 十歲前後에 보고 들은 黃眞伊의 이야기를 八十歲 나이를 먹고 口述하는 마당에서 제아무리 ‘精神強健’한 老人이라 하더라도 七十餘年前 일을 ‘每說眞伊之事 歷歷如昨’ 分明히 말할 수 있겠는가가 常識的인 疑問이다. 國民學校 4, 5學年때쯤의 兒童의 記憶이 七十은 고사하고 五十年後에도 分明치가 않을 것 같아서이다.

(1522 ~ 1523, 中宗 17 ~ 18 年頃)를 官妓女 黃眞伊 그女の 한창 꽃다운 盛名時代로 본 바 있으나, 見解를 바꾼 듯, “여러 文獻을 比較 考察해 본 結果, 黃眞伊는 嘉靖初에 나서 嘉靖末에 卒하였음을 證言한 바”(筆者傍點)⁴²⁾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眞伊의 確實한 生沒年代는 未詳이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中宗(1506~1544)와 明宗(1545~1567)²⁾~⁴³⁾ 代를 두고 意見을 달리하고 있다. 하지만 當時 史的 人物中 花潭·徐敬德(1489~1544) 先生과 白湖·林悌(1549~1587)의 作品上 年代上 背景으로 볼 때 絶頂의 妓女生活은 明宗代까지로 보나 出身과 妓女生活은 中宗代이므로 中宗朝 사람으로 記錄되어야 옳을 것이다.”³⁾~⁴⁴⁾ 는 見解도 있음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이다.

2. 黃眞의 青春遊情

젊어서 한 때 色藝를 兼備한 名唱歌人으로 黃金時節을 누렸던 松都의 名妓⁴⁵⁾ 黃眞伊는 黃進士의 가없는 庶女가 아니면은 貧賤之境에서 춤과 노래를 팔던 盲女 絃首의 딸로 그의 어머니를 따라 基礎的인 對男性 處世術과 詩·書·唱을 배우고 익히고, 從母法(前註 12 參照)에 따라 妓籍에 오른 官妓女가 되었을 것이다. 名唱 名妓의 基準을 어디에다 두던가 神仙女라고 까지 極讚을 아끼지 않았던 黃眞伊, 그녀의 姿色과 歌曲 못지않게 어디를 가나 咳唾之格으로 절절이 읊어 내리는 卽興的 詩才가 勝於男하여 줄줄이 넘쳐 흐르는 時調唱과 漢詩賦를 다루는 날렵한 글솜씨의 멋의 文學的 才質에 있었을 것이다. 어찌 實相을 넘어선 美之言의 讚辭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名唱 名妓의 길을 닦아 一生의 榮光을 한 몸에 안으려는 敎坊에서의 唱曲精進을 위한 피눈물나는 努力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黃眞伊, 그녀의 聰明한 頭腦와 才致있는 文才는 거의 生得的인 데가 있었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며, 自由奔忙한 妓女生活속에 젖어드는 듯 男性 詩人墨客들과의 交分에서 들은 風月, 얻은 文章도 黃眞伊文學에 적지 않은 影響을 끼쳤을 것은

42)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서울: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p. 258

43) 引用文中의 2)再引, ○ 中宗代 ←, 姜壽元外, 韓國人名辭典, 日新社(1955). 寶蓮閣, 韓國人名略傳(1968), 尹甲植, 朝鮮名人典, 又家社, 等

○ 明宗代 ←, 學園社, 文藝大辭典(1962) 等

44) 引用文中의 3)再引, 姜壽元外 韓國人名辭典 日新社中 徐敬德, 林悌 參照.

○ 林性哲, 黃眞伊의 文學과 愛情觀 考察, 文理論叢, 第2輯(서울:전국대학교, 1973. 8. 31) p. 110

45) ○ 破睡錄; - 松都妓眞伊 姿色傾國 文藝尤奇 世謂松兵精神 分爲男女.

○ 韶護堂集; - 黃眞伊 中宗朝人 - - - 略 - - - 眞既長有絶 通書史.

○ 順菴·安鼎福, 順菴雜書; - 娼女眞娘 松都才妓也 當云松都有三絶 朴淵瀑布及 徐花潭世謂信然.

○ 雅亭·李德懋, 清脾錄; - 李朝松都妓 黃眞 艷色工詩.

黃俊良, 錦溪筆談; - 黃眞松都名妓也 色藝俱絶 名播一國.

明若觀火한 일이다.

官妓女 黃眞伊가 當代 第一의 大碩學 花潭·徐敬德先生⁴⁶⁾을 못내 私淑하여 그가 홀로 居處하던 花潭精舍를 자주 出入⁴⁷⁾ 했다는 事實은 여러 곳의 典籍⁴⁸⁾에 나타나 있다.

반드시 거문고와 酒肴를 가지고 자주 花潭精舍를 訪門하여 - 破解文字 喜觀唐詩 - 談論했다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黃眞伊 그녀의 文學的 깊이를 斟酌케 해 준다.

李朝時代 女人으로서 社會活動이 가장 容易했던 이는 ………中略 ………妓女였다. 妓女들은 才貌가 뛰어나고 ……… 49)

李朝時代 妓女의 身分은 매우 賤薄한 것이었지만 容貌才藝가 뛰어난 妓生은 그만큼 自由로운 社會活動을 保障받을 수 있는 것이었으니, 天性이 豪放하고 豁達한 性品이었던 黃眞伊, 그녀에게는 마침내 解放心理를 謳歌할 수 있는 좋은 機會로 삼았던 것이다.

이제, 官妓女 黃眞伊, 그녀의 徹底한 妓女生活속의 自由奔忙했던 愛路歷程을 더듬어 나가기로 하겠다.

① 옆집 總角

黃眞伊가 妓女로 出嫁한 動機에는 巷間에 區區한 稗說이 떠돌고 있는 데, 黃眞伊의 容貌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才藝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그 禮節 바른 一舉一動에 感感한 나

46) 徐敬德(1489-1546)의 字는 可久 號는 復齋, 唐城人, 尊稱으로 花潭先生이라고 부름 官職에 뜻이 없어 松都花潭에 隱居하여 道學에만 專念하여 學者生活로 一生을 마치었음. 理氣一元論을 體系化했으며, 朴淵瀑布(絶勝)·黃眞伊(絶色)와 더불어 徐敬德(絶倫)은 松都三絶로 불리워졌으며, 黃眞伊의 誘惑을 물리친 逸話는 너무나도 有名하다. 靑丘永言에 그의 時調2首가 傳하고 있어 그의 文學的 技巧를 엿볼 수 있으며 著書에는 花潭集(太虛說, 原理氣, 死生鬼補論, 聲音解)이 있다.

47) 柳夢寅 著, 李民樹 譯, 「於野談」(正音文庫, 서울:正音社, 1977) pp. 62-63.

眞娘의 性品이 女子中 英傑이요. 사내처럼 豪俠하였다.

花潭 徐敬德이 高邁한 선비로 벼슬도 많은 데다 學問이 精髓함을 듣고 한 番 試驗해 볼 마음이 일었다. 그는 좁은 띠로 허리를 묶고 大學을 옆에 끼고 가서 걸하며 ‘妾이 듣기는 禮記에 男子는 가죽띠를 두르고 女子는 천으로 띠를 두른다 하옵니다. 妾은 亦是 배움에 뜻이 있어 천으로 띠를 매고 왔읍니다.’ 선생은 웃고 가르쳤다. 眞娘은 밤마다 先生의 가까이서 배우며 은근히 誘惑을 하는데, 이진 神聖한 佛前에 雜鬼가 들어 홀린 듯, 누차 이런 일이 反復되었다. 그러나, 先生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48) ○ 蛟山·許筠, 識小錄; - 平生慕花潭爲人 必携琴 詣潭聖 盡驪而去 - - - - 中略 - - - 直娘常日于花潭曰 松都有三絶 先生曰 云何 曰 朴淵瀑布 及 先生鬢小酌也 此雖善謔 亦者是理 盖松都山水 鬱然盤紆 人才輩出 花潭文理學朝最 而石峰筆法振耀 海內外 近輩民父子兄弟亦文名/ 眞娘亦女中翹楚 即以可知其言不忘. (筆者傍點)

○ 竹泉·李德洞, 松都紀異; - 好與儒士交遊 破解文字 喜觀唐詩 嘗慕花潭 先生 每造謁門下 先生亦不爲拒 與之談笑. (筆者傍點).

49) 士小節

머지 한 이웃집 總角이 꽃같은 黃眞伊에게 魅惑되어 짝사랑을 느껴 사랑의 냉가슴만 앓다가 及其也는 黃眞伊를 두고 相思病으로 죽어갔다는 것이다.

그 可憐한 總角의 葬禮를 치루던 날, 喪輿가 葬地로 向해가던 途中에 黃眞伊의 집 大門앞에 이르러서는 棺이 꼼짝도 하지않고 얼어붙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黃眞이가 한 번 입고 벗어둔 치마 저고리를 棺위에 덮어 주었더니 그제서야 棺이 순순히 움직여 總角의 葬禮를 무사히 치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남달리 聰氣롭고 感受性이 銳敏했던 감직한 少女 黃眞伊는 이 일로하여 恒常 마음이 憂鬱하고 괴로왔으며, 행여 自身の 아름다운 美貌로 해서 또 다른 生命에害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耿耿한 생각에 그만 妓女가 되기로 結心해 버렸다는 것이다.

黃眞이 그 女의 나이 芳年 十五歲때의 일이었다.⁵⁰⁾⁻⁵¹⁾

50) ○ 滄江·金澤榮, 崧湯耆舊傳 또는 韶護堂集; - ……十五歲時 隣有一書生 窺而悅之 不果遂因緣我疾死 樞發至眞門前 馬悲鳴不行先 是書生病 其家頗聞其事 乃使人懇眞 得眞襦覆諸樞 然後馬乃行 眞大感動於是 遂稍以娼行.

○ 鄭漢淑 作, 「黃眞伊」(韓國日報 連載 長篇小說, 서울:正音社, 1955) p. 5.

상여 뒤엔 상주의 그림자도 보질 않았다.

요령소리 뿐이 처량스럽게 울린다. 미련을 품은 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한 총각의 죽음을 조상하는 것 같았다.

바람에 나뭇기는 유소보장(流蘇寶帳)은, 살아 생전 품고 있던 말 한 마디를 끝끝내 하지 못한 相思(相思)에 멧든 가슴에 병이 깊어 쓰러진 총각의 마지막 이별의 손길인듯 싶어 다정다한(多情多恨)하다.

북망산 첫고개를 넘으려면 앞남산 샛길을 지나야 했다. 샛길로 나가려면 진이집 앞길을 피해 갈 순 없었다.

…………… 略……………

(황진사 딸 진이가 나와 관을 안고 쓰다듬어 줘야 관이 떨어진다 등 ……)

…………… 略……………

총각의 어머니는 그런 소리가 떠들수록 혼색졸도(魂塞卒倒) 할 지경으로 통곡을 했다. (以上은 鄭漢淑小說의 喪輿의 章으로 始作되는 黃眞伊(小說) 첫머리 部分인데 作家自身은 黃眞伊의 出生을 黃進士 庶女說로 믿고 있고, 「崧都耆舊傳」 또는 「韶護堂集」의 記錄을 根據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 또한, 一說에 依하면, 黃眞伊의 父親이 當代의 名宰相이었는데, 傾國之禍가 觀相에 달려 있어 이를 救援하기 爲하여 妓女가 되었다. (金一棍, 妓女와 文學, 政大 第5號(建國大學校, 1958) p. 103 고도 하며, 黃眞伊 그女 自身이 庶出임을 悲觀하여 妓女가 되었다. (學園社 編, 「文藝大辭典」 (서울:學園社, 1962) 고도 하며, 封建制度나 道德律에 얽매기 보다는 自由로운 藝術社會가 그리워 妓女가 되었다(姜壽元外, 「韓國人名辭典」 (서울:日新社, 1959) 고도 하는 區區한 傳說이 있다.

② 開城 留守 宋公

이는 當時의 開城 留守로 있던 宋公 - 宋謙(?)인지, 宋純(?)인지⁵²⁾ - 이 그의 大夫人 壽宴席에 關西名唱으로 한 몫한다는 絶色 妓女들은 죄다 모였고, 한당한 벼슬아치와 글깨나 한다는 선비 才士들도 모두 招待하였는데, 粉도 바르지 않은 黃眞伊가 國色 天然한 모습으로 堂堂히 자리에 臨하여 淸婉한 가락으로 音曲을 부르니 凡調가 아니어서, 宋公은 勿論 七十먹은 老伽倻琴 妙手까지도 仙女라고 驚歡을 마지 아니하여서 替纓의 노리개를 차고, 燦爛한 五色 비단 옷차림으로 犯粉 滿座했던 美色의 妓女들과 宋公의 室內夫人들조차도 玲瓏한 가을 찬 이슬을 먹음은 갓 피어난 한 떨기의 菊花꽃처럼 淸楚한 黃眞伊의 天然스런 姿態에 亞然失色할 수 밖에 없었다.⁵³⁾ 는 이야기는 黃眞伊와 宋公과의 무슨 格別한 情分이 있었음을 말하기 爲함보다는 黃眞伊의 絶色 才藝를 強調하는 逸話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金用淑님도 다음과 같이 말하여 開城留守 宋公純과 官妓女 黃眞伊사이는 無關하다는 것을 立證해 보이고 있다. 宋公謙과의 有關 문제는 年代未證으로 남겨 놓았다.⁵⁴⁾

宋純은 그가 留守로 開城에 赴任한 것이 그의 文集 「俛仰亭集 宋公行狀」에 의하여 明宗 戊申(1584 A.D)年이기에 이는 이미 가람 李秉岐선생이 道破한 바와 같이 宋純大夫人과는 아무 聯關이 없는 野談에 불과하다. 그 해가 徐花潭 死後 2年이고 보니 眞伊가 徐花潭 사후까지 生存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을 바에는 中略 그리고 그 行狀에는 일생 「不契妾」이라 있어 野談의 史實과는 徑程이 있다. 더우기 宋純은 그의 어머니를 死別한 것이 53歲때이므로 그가 留守로 赴任하기 3年前에 돌아갔다. 中略 그러면 「宋公」이란 『宋純』이 아니라 「宋謙」인가, 또 그의 史蹟을 살펴보면 이렇하다.

그의 生年은 昭詳치 않으나 中宗 15年(1520年 A.D) 9月 10日에 文科 壯元을 하고 中宗 31年 5月 賀聖使節로 明나라에 건너 간 바 있고 다시 中宗 39年(1544 A.D)에 明에 다녀 오고 明宗 元年 5월에 資憲의 加號를 받았다. 이리하여 그의 沒年도 알 수 없으나

52) 竹泉·李德洞, 松都紀異; - 留守宋公或云宋謙或云宋純 未知孰是初蒞政府 大夫人 壽設壽席 (筆者傍點)

53) ○ 竹泉·李德洞, 松都紀異; - 宋公 大夫人 設壽宴 京城妙妓 歌姬無不招集 隣色守宰替纓聯席 紅粉滿座 綺羅成叢 眞娘不施丹粉 淡粧來預天然國色 光彩動人終夕宴席.....中略 滿酌 匹羅勸飲 眞娘 使之促席纓唱 眞娘歛容 而歌聲寥亮 裊裊不絕 上徹雲衢 高低淸婉 迥異凡調 宋公擊節函稱曰 天才 以樂工嚴守年七十 伽倻琴爲通國妙年 又善解音律 始見眞娘 嘆曰仙女也 及聞歌聲 不覺驚起 曰 此洞府餘韻 世間寧有此調.

宋公大夫人 設壽席 京城妙妓歌姬 無不招集 隣色宋宰替纓聯席

紅粉滿座 綺羅成叢 眞娘不施丹粉 淡粧來預 天然用色 光彩動人

終夕宴席 衆賓莫不稱譽而 宋公少不借顏 蓋慮簾內之窺 恐有前

日之變也 中略 時詔使人本府 遠近士女 觀光者盈集 林立路

左有一頭目 望見眞娘 催鞭百來 注眼良久而去 到館謂通事曰 汝國有天下絶色.

54)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4. 1.) p. 272

대략 燕山君代에 나서 明宗代까지 生存하였으니 徐敬德과 同時代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가 언제 開城 留守로 간 것인지 알지 못하므로 이의 確證을 얻을 수 없음이 遺憾이다.⁵⁵⁾

③ 宣傳官 李士宗

廣濶한 大自然의 浩然之氣를 마시며 山水間에 風流를 벗삼아 질탕치듯 놀기 좋아하던 官妓女 黃眞伊, 그녀는 脫俗의 人間世界를 맴돌다 만난 사람이 李彦邦⁵⁶⁾ = 李士宗⁵⁷⁾이었다.

黃眞伊는 知音에도 能하여 名唱으로 이름난 李彦邦 (= 李士宗)을 찾았을 때 彦邦 (= 士宗) 짐짓 아우라 속이고 노래를 들려 주었지만 黃眞伊는 그의 손을 덥석잡고 나를 속이지 말라. 이 世上에 어찌 이 소리가 있으리요. 그대가 그 사람이라고 대번에 알아 보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黃眞伊가 먼저 李彦邦 (= 李士宗)의 손을 잡고 이끌어 當代의 名唱 風流 歌客인 李彦邦 (李士宗)과 더불어 서로 意氣投合하여 滔滔한 愛情生活를 始作하니 李彦邦 (= 李士宗)의 집에서 3年, 黃眞伊의 집에서 3年 都合 六年의 契約期間을 마치고 未練없이 깨끗이 헤어지니 黃眞伊에게 있어선 가장 긴 同居生活의 記錄이었다.

두 사람은 唱이라는 音樂藝術을 통한 靈魂의 交感으로 結合했던 사랑의 塔이라고나 할 것이며 마음 뜻대로 사랑하고 未練없이 離別한 事緣은 아마 그들도 人間이었기에 누구보다 쓰라린 눈물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④ 李生

官妓女 黃眞伊, 그녀는 不羈人의 生癖을 지니고 山水를 즐겨 찾아 나서는 清流癖이 있었다. 宰相家의 아들 李生과 黃眞伊가 金剛山 探勝의 길을 떠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

李生員이란 자가 있었는데, 그는 宰相의 子弟로서 질탕하게 놀기를 좋아하고 世俗을 싫어 하는 지라, 眞伊는 은근히 찾아서 속을 떠 보았다. ‘이 몸이 듣기에 中國 사람들은 高麗國에 태어나서

55)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p. 265

56) 蛟山·許筠, 識小錄; 一 有士人李彦邦者 善播發清越 人莫敢較其藝 嘗催得弄女子歌 滿座皆感涕遊西京 坊妓幾二百人 方伯明坐勿 棟能否 自都上至龍妓一人 每唱彦邦輒和之 發聲皆恰同無窮已 松京唱眞娘聞其唱 來訪其家 彦邦伴作其弟 以給之 曰家兄不在 然亦能吾歌也 遂記一月空 眞娘握手曰 母敢我爲 擧世何有此聲 君眞其人也 未知綿駒奏青 去此奚遠哉.

57) 於于·柳夢寅, 於于野談; 一 宣傳官 李士宗善歌 嘗欲與之遊 卽鞍天壽院川邊 脫冠加腹而臥 高唱數三曲 眞伊異之 係鳥干院 側耳聞之 曰此歌調甚異 必尋常村歌俚曲 吾聞京中有風流客李士宗 當代絕唱必此人也 俠人狂探之 果士宗也 於是移席相近 致其款 引其款 留數日 乃通 當與子 六年同住 翌日盡移家產 三年之資于士宗家 不助緡錄既三年 士宗餉眞伊 一家一如眞伊餉 士宗以報之者 適三年 眞伊曰 業已遂約 期滿矣 遂辭而去.

眞伊와 李彦邦과 李士宗과의 처음 만나는 場面이 똑같은 名唱들이요. 또 그리고 만나는 대목에 각기 자기의 이름을 속이고 밝히지 않는 것을 眞伊가 그 노래로서 알아맞추었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두 사람이 同一人인지도 모른다.

金剛山을 한번 보고 죽는 것이 所願이라는데, 우리는 향차 이 나라 사람으로 本國에 살면서 仙山을 咫尺에 두고 그 진짜 모양을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몸이 郎君을 만나 받게 되었으니 마침 神仙처럼 노닐기에 안성마춤입니다. 山衣와 野服차림으로 金剛山의 絶景을 觀賞하고 돌아 온다면 또한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리하여 李生員으로 하여금 한 사람의 종도 데려오지 않게 하고 스스로 葛衫에 草蓆을 쓰고 食糧 보따리의 行囊을 둘러 메게 하였다.⁵⁸⁾

이렇게 되어서 黃眞伊는 本來 爲人이 佚宕淸疎한 方外의 놀이를 함께 할만한 李生을 勸해 旅路에 오른 것이다. 黃眞伊에게 있어서 모처럼 찾아가는 “金剛山”은 ‘仙山’이요, 함께 가는 “李生員”은 ‘仙郎’이며, “自身”은 ‘仙女’인양 그들의 金剛山遊覽은 ‘仙遊’라고 表現한 것도 워낙 脫俗의 境地를 憧憬하던 黃眞伊의 面貌를 잘 말해주는 것이리라. 그러나, 芒鞋만 신고 竹杖만 짚고 떠난 몸이기에 黃眞伊와 李生은 金剛山이 자꾸만 깊어져 갈수록 畝주립과 疲困에 지쳐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이 瘦瘠하고 憔悴해져만 갔다. 黃眞伊는 이 菴子 저 寺刹에서 밥을 빌기도 했고, 때로는 몸을 팔아 食糧을 求하기도 했고, 때로는 溪谷에서 벌어지는 선비들의 酒席에 뛰어 들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논 代價로 酒肉을 얻어다가 李生을 먹이기도 했다.⁵⁹⁾ 이는 徹底한 遊治郎과 唱女와의 從遊였을망정 아름다운 山川景概속에서 차라리 虛空을 나르는 浮雲처럼 아니 自然속에 박혀버린 部屬이 되어 人間事 俗世를 잊고 飄飄했을 두 사람 - 李生員과 黃眞伊 - 의 사랑의 謳歌는 좋으나, 憔悴했던 儂慘한 모습이 눈에 歷歷할 뿐이다.

⑤ 宗室人 碧溪守

“青山裏 碧溪水야 …” (前註 31) 參照)의 名時調 때문인지는 몰라도 官妓女 黃眞伊와 宗室人 碧溪守와의 사이에 사랑이 꽃필듯 했던 이야기는 널리 人口에 膾炙된 逸話로 너무나도 有名하다. 이는 宗室人 碧溪守라는 者가 黃眞伊의 뛰어난 容色과 才藝를 貪하여 한 번 만나고자 所願했으나, 黃眞伊는 風流名士가 아니라는 理由로 大번에 拒絕해 버렸다. 碧溪守가 그의 親舊 遜谷·李達⁶⁰⁾에게 議論한 즉, “그대가 小童으로 하여금 가야금을 가

58) 於于·柳夢寅 著, 李民樹 譯 「於于野談」(正音文庫, 서울: 正音社, 1977) p. 62-63.

眞伊聞金剛山爲天下名山 欲一辯淸遊 無可與偕 時有李生者 宰相之子也 爲人跌宕淸疎可其方外之遊 從客謂李生曰 吾聞中國人願生高麗一見金剛山 況我國人生長本國 去仙山咫尺 而不見眞面目可乎 今吾偶拜仙 卽正女子共做山遊山 衣野服恣討幽勝而還不亦樂乎…… (原文).

59) 於于·柳夢寅, 於于野談; - 隨人 金剛山 無心不到乞食諸寺 或自賣其身 取糧於僧 而李生不尤 … 兩人遠步山林 飢渴困悴 無復苗時容顏 行到一處 有才儒 十餘人 宴會于漢上 松林 眞伊過拜焉儒曰 汝舍長赤解爭 勸之酒 不辭 遂執爵而歌 歌聲淸越響 振林壑 諸儒甚疑異之 餉以盤肴.

60) 李達(生年과 沒年 아울러 未詳)의 字는 益之 號는 遜谷(蓀谷 또는 遜谷이라고도 씀), 原州人, 孤竹·崔慶昌, 玉峯·白光勳과 더불어 三唐詩人의 稱號를 받음. 「蓀谷集」(李達文集) 序文에 記錄한 “不妥少日 以神兄命問詩於翁 賴識何及其死也 ……云云 ……萬曆戊午春許”로 보아 蛟山·許筠이 그 仲兄과 함께 어렸을 때 그에게서 詩를 배웠던 모양이다.

지고 뒤를 따르게 하여 黃眞伊의 집을 지나 樓臺에 올라 술을 마시고 一曲을 彈奏하면 黃眞伊가 나와서 그대 곁에 앉을 것이다. 그때 본체만체 하고, 일어나 재빨리 말을 타고 가게되면 黃眞伊가 따라올 것이다. 吹笛橋를 지나도록 그대가 뒤를 돌아보지만 앉으면 일은 成功일 것이다”고 일러 주었다. 碧溪守는 果然 遜谷이 일러준 대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뒤따라 오던 黃眞伊가 말(驢)을 타고 앞서가는 碧溪守를 부를듯이 “靑山裏 碧溪水야 …”를 絶唱하는 바람에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吹笛橋에서 落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黃眞伊가 이를 보고 鼻笑하면서, “碧溪守는 風流名士가 아니라 風流郎이로구나”하고, 黃眞伊 그녀도 곧 돌아서 가버렸다는 것이다.⁶¹⁾ 官妓女 黃眞伊의 能爛한 歌唱力과 아울러 그녀를 짓궂게 따라붙는 痴한의 鑑識力도 놀랍게 銳利한 바가 있었던 것 같다.

⑥ 陽谷 蘇世讓

蘇陽谷 世讓은 剛腸한 사나이로 少時에 恒常 말하기를 “男子가 女色에 感함은 男子가 아니다”(蘇陽谷世讓少時剛腸自許 每日爲色所惑者 非男子也)고 壯談하였는 데, 松都(開城)名妓 黃眞伊를 만나, 한달 30日만 같이 살면 未練없이 헤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豫約된 離別의 마지막 날 黃眞伊가 南樓에 올라 酒宴을 베푼 자리에서 漢詩(五言律)一首(月下庭梧盡 / 霜中野菊黃 / 樓高天一尺 / 人醉酒千觴 / 流水和琴冷 / 梅花入笛香 / 明朝相別後 / 情意碧波長)를 지어 읊으니, 이에 感動된 陽谷 蘇世讓⁶²⁾이 自己의 非情했음을 스스로 나무라며 (吾其非人哉 爲之更留) 豪言壯談한 뜻을 꺾고, 絶色 妓女 黃眞伊 곁을 떠날 줄 몰라 했다⁶³⁾는 것인데, 이것은 제아무리 鐵石같은 節介군은 男性이라도 한번 黃眞伊의 姿色에

61) 黃俊良, 錦溪筆談: 一 黃眞松都名妓也 色藝俱絶 名播一國 宗室有碧溪守者 思欲一眇 而眞高自標致 非風流名士不得親 乃謀於遜谷李達 達曰 公一眇眞娘 能如吾言乎 碧溪守曰 當從君言 達曰 君使小童挾琴隨後 乘小驢過眞娘之家 登樓除酒而飲 彈琴一曲 則眞娘必來君傍矣 若不然則必不成矣 碧溪守從其言 乘小驢 使小童挾琴 眞娘果追後來 而來眞娘家 登樓除酒 而彈琴一曲 即起乘驢而去 眞娘果追後來 當吹笛橋 問於童子 知其碧溪守也 乃受聲而歌曰, (靑山裏碧溪水 / 莫謗去來休 / 一到滄海難再見 / 那得不少留 / 明月滿空山 / 臨去願一游) 碧溪守 聞此歌 亦能去 過溪邊回顧 遽落馬 眞娘笑曰 非名士乃風流即也 即徑還 碧溪守慚恨不已

62) 蘇世讓(1486-1562)의 字는 彦謙 號는 陽谷 또는 退休堂, 晋州人으로 中宗 4年(乙巳)에 登科하여 大提學으로 文衡을 잡았고, 尹任의 專橫으로 辭官하고 鄉里 益山에 물러나 詩文으로 消日하다가 陽谷集을 남기고 돌아갔다.(享年 77歲)

63) 東國詩話彙成(二十一卷), 黃眞條: 一 蘇陽谷世讓少時剛腸自許 每日爲色所惑者 非男子也 聞松都眞眞 才名絶世 與諸友約 吾與此姬同宿三十日 即常離別 不復一產係念 過此限 若更留一日 則汝輩以吾爲非人也 行到松都見眞 果名姬也 仍與交歡限一月留住 明將離去 與眞登南樓飲宴 眞少無悵別之色 只請曰 與公相別 何可無一語 願呈拙句可乎 蘇公許之 即書進一律曰(月下庭盡 霜中野菊花 樓高天一尺 人西卒酒千觴 流水花琴冷 梅花入笛香 明朝相別後 情意碧波長) 蘇公吟嘆曰 吾其非人哉 爲之更留(筆者傍點)

휘감기면 헤어지지 못했다는 그녀의卓越的 美色과 文章力을 아울러 말함이니 黃眞伊에게 있어서 적어도 男性들의 虛張聲勢는 한갓 바위에 부딪치는 泡沫에 不適當한 것이었다.

⑦ 破戒僧 知足禪師

黃眞伊, 그 魔女的 魔力에 말린 것은 松都 사람들이 모두 生佛로 尊敬해 마지않던 知足禪師이었으니, 僧侶生活 面壁 30年餘 開城 近郊 어느 閑寂한 庵子에서 俗世와 因緣을 끊고 晝夜 讀經三昧로 餘念이 없던 그에게 어느날 느닷없이 나타난 것은 素服한 黃眞伊였다. 그녀는 知足禪師에게 靑孀이라고 속이고 高名한 스님의 比丘尼 弟子가 되겠다고 哀願하면서 매어 달렸다.

知足禪師는 난데없는 美色の 出現에 唐慌했으나, 이내 그는 世俗과는 絶緣한 修道者인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비에 젖어 찾아온 그녀의 濃艷한 姿態에 色慾되어 修道生活 30年 絶世의 修道者로 涅槃에 歸依하려던 그의 꿈은 하룻밤의 夜叉로 法服을 벗게 되었다는 것이다. 黃眞伊는 늘 逃懷하기를 “知足禪師를 亡치게한 것은 다 나매문이었다.”⁶⁴⁾고 말한 것을 보면 事實은 事實이었던 모양이다. 이는 俗談에 ‘十年工夫 南無阿彌陀佛’에 “공든 塔”이 무너져 내리는 虛弱한 人間의 裸像이 아닐 수 없으며 女性 存在의 神秘한 魔力的 面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때의 黃眞伊는 不羈 倜儻한 그녀의 性格에 비추어 마치 神들린 妖女처럼 아니었으면 아름다운 惡女の 탈(Mask)을 쓴 것이었을 것이다.

⑧ 花潭 徐敬德

앞서 본 知足禪師가 아름다운 妖女 黃眞伊에게 征服당한 敗北者의 한 사람이라면 花潭先生 徐敬德은 黃眞伊의 끈질긴 誘惑에도 中心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물리쳐 敗北시킨 毅然한 勝利者였다.⁶⁵⁾ 아마도 官妓女 黃眞伊의 自由奔放했던 그녀의 愛情遍歷중에서 唯一한 失敗의 記錄이 될 것으로, 黃眞伊 그녀로 하여금 松都三絶 - 朴淵瀑布(絶勝)·黃眞伊(绝色)·徐敬德(絶倫) - 의 嘆息을 남게한 有名한 逸話가 되어 버렸다.⁶⁶⁾ 當初에는 花潭 徐敬德先生의 高潔한 人品을 말해 주는 逸話였을 것이나, 못 男性이면 누구나 籠絡할 줄 알았던 黃眞伊가 너무도 未安적이고 부끄러운 마음에 “松都三絶”을 외쳐야만 했던 妖女 黃眞伊의 잔재주가 오히려 可憎스러운 地境이다. 이리하여 官妓女 黃眞伊는 平生을 두고 徐

64) ○ 蛟山·許筠, 識小錄; - 每言(眞伊曰)知足禪師 三十年 面壁亦爲我所懷

○ 朝野彙言; - 每言 知足老禪三十年 面壁亦爲我所懷

65) 蛟山·許筠, 識小錄; - 唯花潭先生昵處累年 終不及亂是真聖人

朝野彙言: 唯花潭先生昵處累年 終不亂是真聖人也.

66) 蛟山·許筠, 識小錄; - 每言 唯花潭先生 昵處累年 終不及亂 是真聖人 眞娘嘗白于花潭曰 松都有三絶 先生曰云何 眞娘曰 朴淵瀑布及 先生性小的也 先生笑之 此雖善謔 亦有是理 蓋松都山水鬱然盤紆 人材輩出花潭之理學 爲國朝最 而石峯筆法 振耀海內外 近日車氏父子兄弟 赤有之名 眞娘赤女中 翹楚 即以可知其言不妄(筆者傍點)

花潭先生을 思慕했었다는 것이다.⁶⁷⁾ (平生慕花潭爲人)

이 밖에도 官妓女 黃眞伊가 不斷히 接近했던 男性은 不知其數였겠지만은 文獻의 記錄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는 - ① 옆집 總角, ② 開城留守 宋公, ③ 宣傳官 李士宗 (=李彦邦), ④ 李生, ⑤ 宗室人 碧溪守, ⑥ 陽谷·蘇世讓, ⑦ 破戒僧 知足禪師, ⑧ 花潭·徐敬德 - 以上の 것들 뿐인 것이다.

특히 이 中에서 宋公·碧溪守·知足禪師等은 黃眞伊 그녀의 天稟의 容色과 才藝에 걸려 男性으로서 女性에게 籠絡당한 못난이 爲人列傳에 들게 된 것이다.

3. 黃眞과 佳人薄命

그렇게도 山水를 즐겨 찾아 다니며 大自然속에 묻혀 놀기를 좋아하던 黃眞伊가 죽음에 이르러 家人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生前에 性格이 華麗한 것을 좋아 했으니 死後에는 山에다 묻지 말고 大路邊에 묻어달라⁶⁸⁾
는, 遺言과 함께,

웃을 하지 말고 喪輿가 나갈 때에는 북이나 音樂으로 餞送해 달라⁶⁹⁾
는, 付託과 또,

나 때문에 天下의 男子들이 自身을 自愛하지 못하였으니 棺을 쓰지도 말고 襟衣를 갈아입히지도 말고, 그냥 입은 옷 그대로 屍體로 東門밖 沙水에 버려두어 벌레들이 내 몸을 뜯어가게 함으로써 賤薄한 女子들의 警戒의 標本으로 삼으라.⁷⁰⁾

는 말 - 남다를 遺言 - 을 남기고 臨終하였다는 것이다. 天下의 自由奔忙한 女子 黃眞伊였다 할지라도 그녀도 한 사람의 女性이요, 人間이었는지라 “죽음”이라는 嚴肅한 瞬間에 臨하여 그녀의 華麗하고도 崎嶇한 男性遍歷의 人生살이를 끝냄에 怨望도 懷恨도 있을 理없는 黃昏의 바닷가 落照처럼 끔계 물드는 達觀된 諦念이 있었을 뿐이었겠다.

67) 朝野纂言; - 平生慕花潭爲人 必携琴釀酒 詣潭壁 盡歡而去 (筆者傍點)

68) 於于·柳夢寅, 於于野談; - 眞伊病且死 謂家人曰 吾生時性好其華 死後勿葬我山爲 宜葬地大遠 今松都大路邊 有眞伊塚 (筆者傍點)

69) 蛟山·許筠, 識小錄; - 將死命家人曰 慎勿 出喪此鼓樂導之 至今歌者 能謳其所作 赤異人也 (筆者傍點)

70) 滄江·金澤榮, 崧陽舊傳; - 眞將死囑家人 曰 爲我天下男子 不能自愛 以至於此郡我死 勿會棺 輿暴尺於古東門外 沙水交蟻蟻孤獨得食我肉 今天下女子 以眞爲戒 家人其言 有一男子收而廢之今長湍 井峴南 有黃眞墓 (筆者傍點)

人間本然의 姿勢로 돌아가 娼妓로서의 自己의 位置를 認識하고 한말일 것이니 道通人같이 枯淡하고도 漂烈한 態度라 아니 할 수 없다. 蛟山·許筠이 官妓女 黃眞伊를 가리켜 異人이라고 論評한 것(至今歌者能謳其折作 赤異人也)은 蛟山 自身이 扶安 名妓 桂生을 사랑하고도 아무일 없었던 일이나 花潭·徐敬德이 松都 名妓 黃眞伊를……, 그리고 栗谷·李珣가 黃州 名妓 柳枝⁷¹⁾를 사랑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일과 같이 다들 知人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中國 使臣도 黃眞伊를 보고, “實로 너의 나라에 天下의 絶色이 있다.”(汝國有天下絶色)고 하여 讚嘆을 아끼지 않았던 國色美女 黃眞伊, 그녀는 傾國의 美色과 清雅한 音曲과 卓越한 文章力을 驅使하던 詩文學的 才質로 말미암아 華麗한 一生을 風靡하고 돌아갔지만 지금은 黃眞伊 그녀의 아름다운 姿色도 볼길 없고 玉을 굴리는 듯했던 清淨한 노랫소리도 들을 길없는 홀려간 꿈결이 되고 말았다. 다만 黃眞伊 그녀가 끼쳐 놓고간 珠玉같은 몇首의 그윽한 詞藻의 餘韻만이 남아 우리들의 가슴에 감돌고 있는 것이다. 黃眞伊의 무덤은 그녀의 말대로 松都(開城) 東門밖 長湍 入口 井峴 南쪽 “靑草 우거진”(林悌) 大路邊에 묻혀있는 것이다.⁷²⁾

以上에서 우리는 文獻上에 나타난 史蹟들을 綜合하여 分析的으로 比較해 봄으로서 傳說속의 神仙女 黃眞伊가 아닌 참다운 한 人間, 女性 黃眞伊를 究明해 본 것이다.

B. 黃眞時調論 (六)

韓國詩歌文學史上 女性으로서 文獻上에 文學作品을 남기고 있는 이들로는 아득히 먼 옛날 古朝鮮時代로부터 이미 『箜篌引歌』⁷³⁾(古歌)를 지었다는 霍里子高의 妻 麗玉이 最初

71) 癸未(1583) 九秋 念八日 栗谷病夫 書于串栗甲江材; — 柳枝士人女也 落在黃岡妓籍 餘安海西時以長髮爲侍妓 纖細妖冶 貌秀而心慧 餘撫憐之 初非有情欲之感也 朔後 餘以遠接使 往來關西 柳枝必在閣而未嘗 一日相昵 癸未秋 餘自首陽 省女嬖于黃岡 又與柳枝同杯觴者數日 還首陽時 追送餘于蕭寺 既別 餘宿于栗甲甲村 入夜有人扣扉 乃柳枝也 一笑入室 餘怪問其由 則其言曰 公之名義 國人皆慕 況號爲房妓者乎 且見色無心 尤所歎服 此別後 會難期故 茲敢遠來耳 遂明燭夜話 噫 娼家只愛浪子之多情孰 知有義之 可慕者乎 且不以不見親爲恥 而友服焉 尤所難得 惜乎女士困于賤隸也 且過容寇餘有枕席之私 莫之顧盼 則國香尤耳惜也 遂製詞以叙其實 發乎情 止乎禮義之意 則觀者詳之(詩略)

72) ○ 蛟山·許筠, 識小錄; — 今松都大路邊有眞伊塚

○ 滄江·金澤榮, 松都耆舊傳; — 今長湍井峴南有眞眞墓.

73) 箜篌引歌; — 一名, 公無渡河歌라고도 하여, 津卒 霍里子高가 白首狂夫의 뒤를 따라 江물에 빠져 죽은 어느 女人 — 白首狂夫의 妻 — 의 애처러운 光景을 보고 돌아와, 아내 麗玉에게 이야기했더니, 霍里子高의 妻 麗玉이 그 女人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箜篌에 얹어 부른 것으로, 이 노래의 原作者는 어디까지나 白首狂夫의 妻이며 이 노래를 定着시킨 이가 麗玉(霍里子高의 妻)이라고 보

로 登場하는 女流詩歌人이다. 그리고, 三國時代로 들어 서서 高句麗나라에는 남아 있는 女流作品이 없고, 新羅 나라에서 저 嚴莊의 不足한 道行을 일깨워 주었다는 芬皇寺婢로 있던 廣德의 妻가 지었다는 『願往生歌』⁷⁴⁾ (鄉歌)가 있고, 또한 漢岐里에 살고 있었던 希明 (3075~3098)이라는 女子가 芬皇寺로 그의 五歲된 눈먼 아들을 안고 달려가 芬皇寺 左殿 北壁에 그려져있는 壁畫 千手大悲 觀音菩薩像 앞에서 그의 눈먼 아들로 하여금 그 女가 지은 노래 『禱千手大悲歌』⁷⁵⁾ (鄉歌)를 부르고 祈禱하게 하여 눈을 떴다는 女流詩作人 以外에도 歌佚되어 詩歌作品은 現在에 不傳하나마, 朴提上의 妻 所作으로 『鵝述嶺曲』(增補「文獻備考」와 「樂考」에 記事만)이 있고, 天官女 所作으로 『怨詞』(「破閑集」과 「東國輿地勝覽」에 記事만)가 있고, 木州孝女作으로 『木州歌』(「麗史·樂志」에 記事만)가 있고, 長日縣之女作으로 『方等山歌』(「麗史·樂志」에 記事만)가 있고, 漢詩女流歌人으로는 承沖의 딸 薛瑤 所作의 『返俗謠』가 있다. 百濟 나라에는 저 唯一하게 現存하여 남아 傳하는 外地로 行商나간 男便의 安否를 기다리는 純朴한 女情을 노래한 어느 行商人의 妻 所作으로 알려진 『井邑詞』⁷⁶⁾ (舊百濟地方의 流行古謠라는 說도 있음)말고도 失傳하여 歌亡한 것이나

는 것이다.

이 노래의 確實한 製作年代나 原歌는 알 수가 없고, 四句體 漢文表記의 짧은 漢譯歌 (公無渡河 / 公竟渡河 / 隨河而死 / 當乃公何)가 崔豹의 「古今注」와 韓致齋의 「海東釋史」에 遺傳하는 我國 最高의 詩歌로 알려져 있다.

- 74) 願往生歌; - 新羅 文武王때에 지어진 十句體의 鄉歌로 달(月)을 西方淨土의 使者로 比喻하여 그곳에 歸依하려는 懇切한 希願을 읊은 노래로 阿彌陀佛을 崇尙하는 極樂淨土思想이 잘 나타나 있는 歌謠作品이다.

○ 三國遺事(卷五), 慶德·嚴莊條, 願往生歌; - 文武王代 有沙門名廣德

· 嚴莊二人友善 日夕約曰 先歸安養者 德隱芬皇西里 浦鞋爲業 挾妻子而居 莊庵樓荷岳 大種刀耕 一曰 日影拖紅 松陰靜暮 窓外有聲報云 某已西往矣 惟君好住 遠從我來, ……明日歸訪其居 德果亡矣 於是乃與其婦收骸 同營高里 既事 乃謂婦曰 夫子逝矣 偕處何如, 婦曰可遂留夜宿 將欲通焉, 婦斬之曰 師求淨土 可謂永魚緣木 莊警怪問曰 德既乃爾 矛又何妨 婦曰 夫子與我同居十餘載 未嘗一夕同床而枕 況觸汚乎 ……莊愧根而退. ……其婦乃分皇寺之婢 益十九應身之一德.

- 75) 禱千手大悲歌; - 一名, 禱千手觀音歌라고도 하며, 新羅 景德王때에 지어진 十句體의 鄉歌로 漢岐里女인 希明이 自己 아들 五歲 盲兒로 하여금 觀音壁畫前에 禱歌하게 한바, 觀音菩薩의 大慈大悲로움으로 得眼하였다는 靈異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歌謠作品이다.

○ 三國遺事(卷三),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條, 禱千手大悲歌; - 景德王代 漢岐里女希明之兒生五稔而忽盲 一曰其母抱兒 詣芬皇寺左殿北壁畫 千手大悲前 令兒作歌禱之遂得明 其詞曰 云云.

- 76) 井邑詞; - 餘音을 除外하면 三章六句로 되어 있으며, 行商나간 男便의 安否를 念慮하는 家妻의 哀切한 情念을 吟咏한 詩歌作品이다.

특히 近世 朝鮮朝에 와서는 阿弄曲(月下高高的上來些 / 遠遠的照着時阿 / 漁巖漁堪釣哩 / 阿弄多弄日尼)이라고 하여 處容舞·鳳凰吟·三眞勺과 함께 歌唱하였다. 柳子光·申末平等編 「樂學軌範」과 鄭麟趾의 「高麗史」에 遺傳한다.

마 求禮縣人之女作으로 記錄만 傳來하는 『智異山歌』(「麗史·樂志」에 記事만)가 있고, 長沙人妻作으로 『禪雲山歌』(「麗史·樂志」에 記事만)가 있어서 그나마 當時에 살았던 女性들의 文學的 活動에 對한 一斑을 窺知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고 高麗時代로 내려 와서는 高麗歌謠 — 假令 動動·雙花店·鄭石歌·西別別曲·相杵歌·履霜曲·思母曲·滿殿春 別詞 等等 — 의 內容으로 보아서 大部分의 作者가 거의 女性들이라고 할만큼 女性들의 愛情生活를 反映하고 있다.

이 밖에도 益齊·李齊賢(1287-1367)의 解詩로만 傳하는 行役者妻所作的 『居士戀』과 濟危賈役女所作的 『濟危賈』가 있으며, 漢詩藝作家로는 彭原妓·動人紅의 『自叙』와 龍城妓·于咄의 『寄國瞻』과 學者女 所作的 『戀慕詩』가 있었으며, 歌謠亡失의 女流作家로는 元興縣人妻所作的 『元興』과 禮成江人妻所作的 『禮成江』과 安東婦人所作的 『安東紫青』이 있어서 近世 朝鮮朝 以前의 女性文學의 一脈을 짚어 헤아려 알게해 주고 있으며, 高麗 中葉부터 發生하기 始作한 時調文學은 李朝時代로 내려서면서는 비록 兩班官僚인 貴族階級の 儒學者들의 손에 依해 獨占되었다 하더라도 時代的인 發展趨勢를 쫓아 漸次 興旺의 途程을 밟아 갔으니 李朝 中葉에 이르러서는 『時調』가 平民文學의 主流를 이루게 되고 따라서 女流 時調詩歌人 — 主로 妓女이기는 하였지만 — 들도 多數 登場하여 女性 特有的 纖細하고 豐艷한 時調作品들이 小量으로 創作되었으니, 아마도 麗末 禡王때의 江陵妓 紅粧을 最古의 女流時調人으로 하여 量的 面에서는 絶對로 男性作家들에게 못미쳤지만 質的 面에서는 熾微하게나마 李朝 女流時調文學의 꽃을 피웠다.

그런데, 그 時調文學의 꽃 中에서도 꽃中의 꽃(花中之花)으로 활짝 핀 꽃이 바로 官妓女 絶唱 黃眞伊의 時調文學이었다.

異常한 것은 非但 黃眞伊뿐이 아니고 모든 妓女身分의 作家들이 한결같이 時調 장르(Gen're)의 文學作品만을 創作했다(거기에는 그럴만한 理由가 반드시 있게지만)는 事實인데, 舉皆의 妓女作家가 女性이라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例外없이 主題(theme)는 모두 私身邊에 關與한 것과 男女間의 愛憎에 關한 것의 兩極性을 보여 준다.

黃眞伊의 時調作品 亦是 主題面에서 考察해 볼때 어김없이 이 範疇에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範疇에 맞추어 現傳하는 黃眞伊의 時調作品 總六首(前註9) 參照)를 主題別로 分類하면, 『冬至스들……』① / 『너언제……』② / 『靑山은……』③은 질탕함과 끈기로운음으로 郎君을 부르는 소리 <艷情歌>이며, 『靑山裏……』⑤는 뚜렷한 愛情의 欲望을 나타낸 <誘惑歌>라 아니할 수 없고, 그 作品內容의 特性을 한데 묶으면 絶色才藝女 黃眞伊 그 女 自身을 안고 돌아가는 “戲戀의 熱情”이라고나 할 것이다. 『어제 너일이야……』⑥는 보내고 그리는 情의 恨別을 노래한 애ழு는 <別離歌>요, 『山은 靑山이로되……』④는 가고 아니 오는 옛 人傑(徐花潭)에 對한 안타까움으로 그 은근함으로 잡혀지는 人生의 無常함을 노래하는 것으로 作品內容의 特性이 “遊女の 諦觀”이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趙雲濟님의 黃眞伊의 詩에는 自己와 愛人, 둘 뿐이라고 말하여, 森羅萬象은 그들에게 吸收되었거나 無視되어 버렸다. 明月이나 靑山, 碧溪水가 나오지만 그것은 즐기는 對象

으로서의 自然이 아니라 두사람의 關係를 이어주는 이미지 (Image) 로 쓰였다. ……略 …… 가장 積極的이고 가장 受動的으로 보이는 黃眞伊의 詩가 逆說的으로는 가장 積極的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의 黃眞伊의 詩속에 깔려있는 逆說 (Paradox) 이며, 이 逆說이 그 女의 詩의 呼訴力의 原動力이다⁷⁷⁾ 고 黃眞伊詩歌의 原素的 論評을 加하고 있으며, 趙雲濟님은 黃眞伊 그 女의 時調文學 形式에도 言及하여, 그 女는 또한 時調라는 定型詩를 自由自在로 驅使하고 있다. 三四 三四로 되어야 하는 字數도 <一到 滄海하면>, <어저 내일이야> <春風 니블아래>, <月沈 三更에>, <綠水 - 흘러간들>等 마음대로 二四調 或은 二三調로 쓰고 있으며, 三五調로 되어야할 終章에서도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었던>, <綠水도 靑山을 못니저>等에서 三七調, 또는 三六調로

이시라 하더면 가라마는 제구투여
보내고 그리논 情은 나도 몰라호노라

에서는

이시라 하더면 가라마는
제구투여 보내고 그리논 情은 나도 몰라 호노라.

로서 章을 넘겨서 붙인 말을 앞 章에 붙이고 있다. 이런 作法은 定型詩를 쓰는 技巧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詩의 定型을 마음대로 驅使하여, 自由自在로 쓰는 뛰어난 詩作이다. ……中略 …… 黃眞伊가 우리 詩文學史上에서 時調라는 定型詩에서 詩形에 拘束을 받지 않고, 오히려 定型을 自由로이 驅使한 最大 巨匠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여러 點으로 보아 筆者(趙雲濟 - 筆者註)는 黃眞伊가 우리 詩文學史上의 最大의 詩人이라고 생각한다⁷⁸⁾ 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李相寶님은 말하기를 黃眞伊의 作品 六首는 그 字數律로 보아 3·4·4·4·4, 3·4·4·4·4, 3·5·4·3으로 完全한 平時調의 形態를 갖추고 있으니 …… 中略 …… 이것들을 靑丘永言에서 區分한 바에 依하면 羽調 初數 大葉 二首 (① 冬至스 될 기나긴 밤을 …… ② 어제 너일이야 ……), 羽調 二數 大葉 九首 (①, ②, ③ 略 …… ④ 너언제 믿이엿서 …… ⑤ 산은 냇山이로더 …… ⑥, ⑧, ⑨ 略 ……), 界面調 二數 大葉 一首 (……略……), 界樂 時調 一首 (靑山裏 碧溪水야 ……) 등이 있다. 이것은 唱을 目的으로 엮은 것이기에 平調·羽調·界面調로 大別된 各調 體格이 있어 各其 그 聲律도 달랐다. 그리하여 平調는 哀而安하고 雄深和平하여 黃鍾一動萬物皆春格이고, 羽調는 厲而舉하고, 靑壯激勵하여 玉斗撞破碎屑路鳴格이고, 界面調는 淸面速하고 哀寃悽愴하여 忠魂沈江餘恨滿楚格이라 하였다. (海東歌謠序參照) ……中略…… 初數 大葉은 風度가 表袖善舞하고 形容이 細柳春風하며, 二數 大葉은 風度가 杏壇說法하고 形容이 雨順風調하여, 界面時調는 堯風湯日花爛春城

77) 趙雲濟, 韓國詩의 理解(弘新新書, 서울: 弘新文化社, 1978. 12. 1) pp. 58-59.

78) 上揭同書, pp. 59-60.

이라고 規定하였다. (上揭書及 靑丘永言目錄參照)

이것으로 미루어 眞伊를 비롯한 (一略一) 모두가 淸壯激勳한 氣運으로 실버들의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것과도 같고, 가랑비 내리고 바람조차 고루어진 듯한 (細柳春風·雨順風調) 가락으로 그들의 抒情을 폈다고⁷⁹⁾ 말하였다.

이제, 黃眞伊時調文學의 作品六首⁸⁰⁾ (前註9) 參照)에 對한 各論을 펴기 爲해 그 女의 時調作品을 뚜렷한 두가지 樣態로 갈라 보면, 하나는 黃眞伊 그녀 自身の 變함없는 사랑을 다짐하는 노래요, 그 다른 하나는 언제나 님에 對한 所懷로 可變하는 사랑을 안타까와 하는 노래들이라는 點이다.

1. 戲戀의 熱情(사랑癖)

黃眞伊는 近世 朝鮮朝의 名女流時調詩人으로 情熱의 女人답게 當代를 風靡하고 돌아가던 여러가지 浪漫的 逸話 (A. 黃眞傳考究 / 2. 黃眞의 靑春遊情, 參照)와 함께 사랑의 執癖을 노래한 時調가 오늘날까지도 愛唱되고 있는 그 作品의 感動의 情緒의 本質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極히 自然스런 文章의 흐름을 따라 始作되는 저 有名한,

冬至스들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春風 니불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쪼리라.⁸¹⁾ ①

동짓달 긴 밤의 한 가운데를 베어 내어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에 서리 서리 뭉치어 넣어 두었다가 정든 입이 오신 날 밤이면 굽이 굽이 펼쳐 내어 그 밤이 그토록 더디 새게 길게 길게 이으리라.

는, 이 時調作品은 얼마나 따사롭고도. 알뜰 살뜰한 꿈결같은 아쉬움과 怨訴로 뒤얽힌 戀

79) 李相寶, 女流時調作家論, 國語國文學, 第14輯 (1955. 12. 15) pp. 334-335.

80) 趙雲濟, 韓國詩의 理解(弘新新書, 서울:弘新文化社, 1978. 12. 10) p. 50

黃眞伊라는 才能있는 妓生이 많은 漢詩나 詩調(「時調」의 誤記로 보임 一筆者註)를 썼겠으리라는 것은 쉽게 斟酌할 수 있으나 그 女가 妓生이라는 賤職에 있어서 記錄하여 남겨 놓을 수 없었는 事實과 或 記錄이 되었다 하더라도 잦은 戰亂때문에 다 타버렸다는 것도 斟酌할 수 있다.

81) 出典; 一 珍本 靑丘永言(287), [異本] 校註 海東歌謠(崔南善本과 李熙昇本の 有氏名部 校合本(33) / 花源樂譜(16) / 李熙昇本 靑丘永言(15) / 崔南善 靑丘永言(15) / 權花樂府(376) / 雅樂府 / 女唱歌謠錄(11) / 樂本 歌曲源流(18) / 崔南善本 歌曲源流(15) / 서울大學校本 歌曲源流(14) / 雅樂府本 女唱類聚府(10) / 東歌選(11) / 大東風雅(40) / 詩歌謠曲(2) / 奎章閣本 歌曲源流(18)

○ 鄭炳昱, 時調文學事典(서울:新丘文化社, 1966. 10. 10) p. 165. (162)

○ 海東小樂府: 一 [漢譯詩] 載取冬至夜半強 春風被裏屈幅藏 有燈無月即來夕 曲曲鋪舒寸寸長.

歌風の 사랑의 노래인가! 이처럼 黃眞伊는 그녀의 情熱과 浪漫과 感傷을 언제나 即興의
 으로 읊어 냈으니, 이는 現傳하는 黃眞伊의 全 時調作品 六首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洗鍊
 된 우리말의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語彙의 뉘앙스(Nuance)를 잘 살려낸 奧妙한 技巧의
 代表作으로 빼어난 絶品이 아닐 수 없으며, 아주 重要的 時調文學 主流의 한 역사를 擔當하
 는 名作이요, 逸品이요, 絶唱이 아닐 수 없다.

自己를 背叛하고 떠난 그 郎君을 怨望하기는 커녕 오히려 눈이 빠지도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冬至스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낸’다는 것은 獨守空房 넘없는 긴긴
 한겨울 밤의 애끓는 時間을 싹둑 잘라 短縮하자는 意味의 表現으로 끝내는 短縮할 수 없
 는 時間의 詩的 空間化라고나 할까? ‘春風니불 아래 서리 서리 넣겠다’는 것은 幸여나
 그래도 지금은 추운 겨울 밤이라 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한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찾
 아오면은 님도 돌아 올 것이라는 期待에 찬 봄의 時間 — 봄에 임이 오시면 所重히 간직
 해 두었던 時調을 꺼내서 기리 기리 늘려 쓰리라는 — 을 詩的으로 擴散시키려는 意志의
 表現일 것이다. 그러나, 確信하고 믿는 萬의 하나라도 진작 님이 아니 오신다면 그 따뜻한
 봄도 겨울일 수 밖에 없으니, ‘어른님 오신날 밤이여든’하고 내미는 條件附의 提示는 ‘퍼
 리라’는 意志의 反逆이기에 미상불 假想에 머무를 수 밖에 없고, 決코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님을 기다리며 한숨으로 지새우는 可憐한 女人의 哀切한 心情만이 女性
 特有的 纖細한 가락과 感覺으로 잘 表出된 名作 時調로서 吾園·張承業(1843-1897)의 그
 림이나 梅泉·黃玟(1855-1910)의 싹키처럼 神韻이 감도는 逸品이라고들 말하고 있는 것
 이다. 밤의 한 가운데를 ‘허리’라고 表現하는 手法도 놀라운 바이거니와 그것을 ‘베어낸
 다’고 한 것은 더욱 奇拔한 着想이 아닐 수 없으며, 黃眞伊만이 可能한 實로 非凡한 그
 녀의 秘術的 詩作 方法이 아닐 수 없다. 무슨 物質도 아닌 抽象名詞로 쓰인 時調을 나무
 토막 잘라 내듯이 베어 낸다고 한 것은 實로 놀라운 詩的 想像力이 아닐 수 없으며, 이렇
 게 해서 베어낸 冬至스달 긴긴 밤의 한토막을 서리 서리 넣는다고 한 것은 한사코 님이 오
 신날 밤에만 퍼리라고 前提하는 跌宕함이다. 鶴首苦待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른님’이 오
 시기만 하면 九曲肝腸 애태우던 情懷를 온통 밤이 湯盡토록 구워구워 퍼졌다는 버르고 버
 름을 略吐하는 詩情인 것이다. 님이 오신날 밤은 너무도 짧은 것에 對備하여 미리 恨으로
 맺히는 萬端情話를 지리하고 긴긴 冬至스달 한겨울 밤에 차곡차곡 쌓기고 서러고 접어 넣어 두
 었다가 — 남아 돌아가는 이 밤을 잘라 내어 임이 오신 날 밤의 짧은 時間을 길게 늘이기
 爲하여 保管해 두자는 것 — 님이 오신 날 밤이면 그것을 굵이 굵이 퍼서 날이 더더 새게
 할 것이라는 굳고 굳은 다짐인 것이다. 詩人의 마음은 서리 서리 넣을 때의 시름겨웠던 心
 情과는 달리 春風니불 아래 구워 구워 퍼리랄 때는 興에 겨워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듯한 밤의 한허
 리를 풀어서 잇는 詩的 動作에는 님을 맞는 즐거움만으로 神明만 同伴心理에 黃眞伊 그 女
 自身이 그만 精神을 아찔 잃고 있는 것이다. 끝없는 戀慕之情에 滿醉해 있는 『艷情歌』 (1)
 라고 할 것이다.

내 언제 無信하여 님을 언제 소켓관디
 月沈三更에 온 뜻이 전혀 없너
 秋風에 지는 님소리야 넌들 어이 하리오.⁸²⁾ ㉠

내가 언제 님에게 미덥지 않게 굴고, 또 입을 속였기에 西山으로 넘어간 달도 깊은 밤
 중이 되도록 오실 機微가 전혀 없을까?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도 幸여나
 임이신가 하고 속아지는 내 마음을 나 自身인들 어이 하리오.

라는, 이 時調作品은 鐵石같이 굳게 한 님과의 約束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를 않는 크
 나큰 怨望과 交叉하는 깊은 孤獨으로 限없이 서글픈 女人의 恨맺힌 心情을 읊은 것이다.

며날 때는 가을이면 꼭 돌아오겠다고 約束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님이 오시지를 않
 고 있는 것이다. 過도 허물도 千萬에, 秋毫에 虛言한 일도 없는 이 착하다 착하기만한 孤
 子한 女人은 悔蔑感에 가득찬 悽涼한 心情으로 자꾸만 입이 怨望스러워 지는 것이다. 달도
 없는 외로운 빈방에 홀로 누웠어도 全身에 온 神經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지는 님의 발
 자국 소리에만 귀 기울려져 落葉지는 소리에도 一曳履聲으로 錯覺하면서 깜짝 깜짝 놀라
 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님의 발자국 소리가 변연히 아닌 줄을 알면서도 기다려지는 女心
 인 것이다. 끝내는 落葉처럼 失望만이 수북이 쌓여 九曲肝腸을 애태워 녹이는 숨막히는
 孤獨한 女心만이 회오리치는 것이다.

黃眞伊時調에 있어서 ‘가버리고 오지 않는 입’은 恒常 對象인 것이다.

㉠ 時調의 ‘네 언저’의 初章 前後句에 나오는 ‘無信하여’와 ‘속엿관디’의 ‘無信’과
 ‘속임’은 自我인 <나>即 黃眞伊의 것이 아니고 對象 即<입>의 것인 것이다. 中章의 ‘月
 沈三更’에는 空間과 時間觀念이 同時에 合流되어 있다. 이 空間과 時間의 並置 概念은 밝
 음(明)과 어둠(暗)의 對立으로도 볼 수 있다고 尹榮玉님은 말하고, 이것이 自我와 連結될
 때 期待의 未來指向의 條件이 된다고도 말한다. 그래서 中章 後句의 ‘온 뜻지 전혀 없
 너’는 自我와의 關係에서는 텐션(Tension)을 造成하고 前句와의 關係에서는 아이러니(I-
 rony)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렇게 아이러니칼(Ironical)한 狀況에서 詩人은 自拋自棄의 人
 諦念으로 치달게 된다. 終章의 ‘秋風에 지는 님 소리야 넌들 어이 하리오’가 바로 그것이다.
 ……中略…… 여기서 <야>라는 諦念의 助詞가 後句 ‘넌들 어이 하리오’하는 諦念의 陳
 述과 緊密히 맺어져 그 諦念의 情操를 훨씬 強力히 나타내 준다. 對象과 和合되지 못하고
 齟齬되는 自我의 抒情은 그 自體가 바로 텐션(Tension)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텐션(Te-

82) 出典；一 珍本 靑丘永言(288), [異本] 校注 海東歌謠(崔南善本과 李熙昇本の 有氏名部 校合本,
 134) / 崔南善本 靑丘永言(271) / 槿花樂府(275) / 古今歌曲(233) / 雅樂府本 女唱類聚(18) / 崔
 南善本 女唱類聚(18) / 女唱歌謠錄(17) / 樂府(67) / 東歌謠(136) / 奎章閣本 歌曲源流(679) /
 ○ 鄭炳昱, 時調文學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66. 10. 10) p. 109 (434)

○ 海東小樂府；一 [漢譯詩] 響屧疑；寡信無曾滿着屨 月沈無意夜經過
 颯然響地吾何與 原始秋風落葉多

nsion)은 그대로 黃眞伊詩의 構造的 原理로 作用하고 있다고도⁸³⁾ 말하고 있다.

結局 女人의 애타는 기다림으로 孕胎하는 孤獨한 諦念을 노래하는 이 時調는 焦燥하게 임을 기다리며 落葉지는 秋夜長 긴긴 밤에 홀로 輾轉反側 잠 못 이루어 (獨不眠) 애태우는 女心の 애달픈 事緣이 切切히 그리워지는 對男性 情恨으로 곱게 刺繡하듯 率直히 쓰고 있는 끈기있는 기다리는 女人의 恨없는 苦待之情을 노래한 『艷情歌』(2) 라고 말할 것이다.

靑山은 내뿔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니져 우러예어 가노고⁸⁴⁾ ③

變함이 없는 푸른 山은 바로 나의 뜻이고, 暫時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은 임의 情이 아닐 수 없다. 물이야 흘러 가더라도 山이야 變할 수 있겠는가! 어쩔 수 없이 흘러야만 하는 저 물도 自己가 흘러 나리던 山情이 그리워서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는, 이 時調作品에서 黃眞伊 그 女 ‘自身의 뜻’은 變함 없는 ‘靑山’에, 자꾸만 ‘變하는 임의 情’은 ‘綠水’에 比喻한 積極的인 愛情의 宣布라고 趙雲濟님은 말하고, 모든 逆境과 苦難까지도 달게 받겠다는 達觀된 境地와 諦念 사이 그리고, 愛人에 對한 同情까지가 內包되어 있다고 말한다.

黃眞伊 그녀의 自尊心은 自己를 靑山으로 比喻하고 떠나가는 男子의 마음을 산골 물로 比喻하였다. 산골 물은 흘러 가지만 靑山인 自身은 變하지 않는다고 斷言하였다. 큰 怨望이 있으며, 斷乎한 決意가 보인다. 貞操를 지켜야 하니까 지킨다는 小極的인 道德律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뛰어넘어서 積極的인 사랑 無限한 사랑을 宣布한다.

사랑 때문에 모든 苦難을 달게 받겠다는 達觀의 境地에서의 忍耐의 宣布인 것이다. 이제 는 산골 물은 흘러 가도 좋다는 諦念이다. 그러나 산골 물도 흘러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울며 가는 것을 同情한다. 하늘같이 넓고 끝 없는 사랑이다⁸⁵⁾는 것이다. 또한 이 時調의 初章 終句의 마지막 <임의 情이>의 <이>字는 놀라운 솜씨라고 趙雲濟님은 말하고, 原來 우리말에서는 ……略…… <이>字 한字로 끝을 맺는 助詞로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黃眞伊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字로 끊었다. 字數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얇은 解釋이다. 그 女의 時調의 單句節에서는 얼마든지 變則이 있다. <이>로 끊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略…… <이>로 끝나서 아주 開放的이다. 失望·哀願·呼訴 等 무엇이랴고 꼬집어 말할 수없는 感情을 나타낸다고⁸⁶⁾

83) 尹榮玉, 黃眞伊詩의 tension, 國語國文學, 第83號(1980.6.8) pp. 314-315.

84) 出典: 一 大東風雅(128)

○ 鄭炳昱, 時調文學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66.10.10) p. 483(2063)

85) 趙雲濟, 韓國詩의 理解(弘新新書, 서울: 弘新文化社, 1978.12.10) p. 54

86) 上掲同書, p. 56

말하고 있다. 그리고, 初章과 中章에 거듭되는 ‘青山’과 ‘綠水’는 詩作 構造上 서로 自然스러운 對句를 形成한다. 青山=나뭇, 綠水=님의 情은 바로 隱喻다. ……中略…… 主體는 <뜻>과 <情>이 된다. ……略……<뜻>을 意志로 바꾼다면 <情>은 물의 屬性에서 그 類似性을 찾아야 한다. ……略…… ‘綠水 흘러간들’에서 綠水의 屬性은 <흘러간다>로 밝혀 주고 있다. 그러니 님의 情도 <흘러간다>는 것이다. ‘흘러간들’의 <~나들>에서 放置된 狀態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은 自我의 支配領域 밖에 있는 對象을 認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對象인 님은, 더우기나 님의 情은 自我의 支配 밖에 있음을 自我는 冷徹히 認識하고 있다고 하겠다. 自我와 對象과의 對立은 <뜻>과 <情>의 對立으로 換置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詩人은 “青山이야 變換손가”라고 읊조린다. 自我의 意志는 不變임을 強調한 것이다. ……中略…… 青山과 綠水의 形象의 意味는 終章에서 詩人에 의하여 再解釋된다. “綠水와 青山을 못니져”는 詩人에 의하여 賦與된 意味요, 感情移入의 狀態다. ……略…… 그래서 “우리 예어 가느고”라 했다. ego-centric한 것이지만 이 <못니져>와 <우리>에 의하여 텐션(Tension)은 한層 高潮되어 나타난다. 自我와 對象間의 關係가 이 終章에서 克明하게 나타난다⁸⁷⁾는 것이다. ‘青山과 綠水’即 ‘山水’에 纏 놓아진 自然의 『艷情歌』(3)이라고나 할 것이다.

다음 時調는, 松都의 三絶 — 絶勝: 朴淵瀑布, 絶倫: 徐花潭, 絶色: 黃眞伊)로 有名한 花潭·徐敬德先生의 죽음을 哀悼하여 黃眞伊가 지은 것이라고 傳한다. 絶色 官妓女였던 黃眞伊 그女가 한 때는 徐花潭 그를 誘惑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고, 도리어 花潭先生 그의 聖人스런 偉大한 人格에 感化되어 師弟之間의 각똥한 情誼를 맺었던 花潭 門下의 黃眞伊였다. 戀情을 서로 나누어 사랑했던 對象은 決코 아니며, 學問的인 唯一한 尊敬의 對象이었던 花潭先生의 죽음이 적어도 黃眞伊에게 있어서 커다란 衝擊이요, 복받치는 嗚咽을 禁치 못했을 것이다. 同時에 이처럼 偉大한 人物도 물같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데 하물며 微物같은 衆生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無限한 空間속에 有限者로서 살아가는 人間의 存在가 서글프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山은 벚山이로되 물은 벚물 안이로다
晝夜에 흘은이 벚물리 이실손야
人傑도 물과 又도다 가고 안이 오노마라.⁸⁸⁾ ④

87) 尹榮玉, 黃眞伊詩의 tension, 國語國文學, 第83號(1980.6.8) pp. 308-309.

88) 出典; — 校注 源東歌謠(崔南善本과 李熙昇本의 有氏名部 校合本, 135)

[異本] 李熙昇本 青丘永言(300, 638) / 崔南善本 青丘永言(272) / 槿花樂府(221) / 古今歌曲(85) / 花源樂譜(345) / 雅樂府本 歌曲源流(308) / 崔南善本 歌曲源流(315) / 서울大學校本 歌曲源流(330) / 奎章閣本 歌曲源流(307).

○ 鄭炳昱, 時調文學事典. (서울: 新丘文化社, 1966.10.10) p. 252. (1050)

自古로 山은 以前의 그 山이지만 물은 以前의 그 물이 아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繼續해서 흘러가고 있으니, 옛 물이 그대로 남아있을 理가 萬無한 것이다. 一世에 뛰어났던 사람도 저 물과 같아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徐花潭 哀悼의 이 時調作品은 人生的 無常함을 노래하고 있다. 山은 제아무리 歲月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대로 恒常 우뚝 솟아 있지만, 그 山밑을 감돌아 흐르는 물은 暫時도 머무를 틈이 없이 흘러 지나가 버린다. 사람들도 이 흘러가는 물과 같은 可變的인 存在여서 제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一但은 永遠의 저 世上으로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길 없다는 것이다. 悠久한 自然에 對한 짧은 人生的 無常을 노래한 것이라고 解釋할 수도 있는 것이다. 靑山은 自然으로 比喻하고, 人傑은 물로 比喻하였다. 그래서 自然은 오래도록 푸르지만 사람은 물과같이 한 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解釋할 수가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解釋은 黃眞伊가 妓生으로서 많은 人傑을 對했으며, 그 中에서 情을 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或은 죽어서, 또한 變心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對한 사랑의 詩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解釋해 보면, 이 節은 悠久한 自然에 對한 有限한 人生的 恨과 自己를 버리고 간 愛人에 對한 恨이 깃들여 있어 그 女의 詩의 序曲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⁸⁹⁾는 것이다. 또한 이 時調에 對한 尹榮玉님의 解釋은 山과 물의 對比로 그 屬性의 差異를 밝히고 人傑을 물에 比喻함으로써 人間의 無常을 나타내고 있다. ……中略…… 初章에서는 山을 定坐한 靜의 不變의 實體로 把握하고 물은 流動하는 動的 變轉의 屬性으로 把握하고 있다. 前者를 無時間의 空間的 實體로 보고, 後者를 無住의 時間的 變轉으로 본 것이다. ……略…… 이러한 初章의 陳述은 그것대로 讀者의 共感을 얻을 수 있으나 좀더 說得力을 얻기 위하여 論理的인 證明을 해 보인다. 中章이 그것이다. “晝夜에 흘러거든”, 이것은 물의 屬性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나, …… 略 …… 그래서 中章의 後半 “벚물이 이실소나”는 初章 後半의 反復임과 同時에 中章 初半의 確證的 陳述을 設疑法으로 表現함으로써 二重으로 強調되었다. 그러나, 이 時調의 中心은 終章에 있다. “人傑도 물과 같도다”는 直喩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作品의 構造가 論理에 根據하고 있기 때문이다. ……略…… 여기서 人傑은 모든 人間으로 代置해 볼 수도 있으나, 黃眞伊가 山을 自我에 물은 對象(님)에 比喻한 것으로 特殊化 시키면 이 때의 人傑은 黃眞伊를 스치고 지나간 男姓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가고 아니 오노도다”는 人間全體의 無常을 詩人 個人의 것으로 해서 읽어 볼 수도 있다.⁹⁰⁾는 것이다. 이처럼 한번 돌아 가신 뒤로는 永永 돌아 오지를 않는 花潭 偉人을 두고 부른 『慕情歌』(4)인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詩人 黃眞伊의 變치 않는 참다운 사랑의 執辭을 노래한 四首의 戀歌같은 時調作品들을 보아 온 셈이다.

89) 趙雲濟, 韓國詩의 理解(弘新新書, 서울: 弘新文化社, 1978. 12. 10) p. 51.

90) 尹榮玉, 黃眞伊詩의 tension, 國語國文學, 第83號(1980. 6. 8) pp. 310-311.

2. 遊女の 諦觀 (清流癖)

絶世佳人으로 音律詩書에 精通했던 松都名妓⁹¹⁾ 黃眞伊에게는 일찌기 名山大川을 (楓岳山·太白山·智異山) 逍遙하면서 山水樓臺를 吟咏하기를 좋아하는 清流癖이 있었다.⁹²⁾

말하자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예 못 믿을 일 -, 黃眞伊 그 女の 불타는 熱愛뒤에 타고 남은 재는 恒常 戀愛-失戀-絶望-孤獨-諦念으로 一貫되는 自身の 가슴아픈 사랑의 傷處를 治癒해야만 하는 作業이었다. 黃眞伊 그女에게 있어서 어느덧 사랑뒤에는 으레껏 따르기 마련인 離別의 아픔을 씻는 自家治癒의 習性이 곧 眞伊를 달래 줄지도 모를 진달래꽃이 滿發하는 藥山 東臺와 같은 名山大刹을 즐겨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고 黃眞伊時調에 항상 튀어 나오는 靑山과 碧溪水는 언제나 黃眞伊 그 女를 따듯이 맞아 들여 遊女の 諦念을 어루만지기라도하듯 達觀의 世界로 그녀를 이끌어 주는 것이었다.

다음은 저 宗臣 碧溪守와 黃眞伊와의 로맨스(Romance)로 有名한 時調

靑山裏 碧溪水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一到滄海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하니 수여간들 엇더리.⁹³⁾ ⑤

푸른 山 속을 흐르는 맑은 시냇물야, 빨리 흘러 간다고 자랑하지를 말아라. 한 番 넓은 바다에 到達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것이니, 맑은 달이 빈 산에 가득차게 비치고 있는 이 아까운 밤을 쉬었다가 가면은 어떻게겠느냐?

는, 님에 對한 強力한 怨望과 懇曲한 挽留를 同時에 나타내는 이 時調 作品은 人生 無常을 自然의 理致에 비추어 巧妙하게 읊어낸 作品으로서 ‘靑山’은 永遠者로서 變함이 없는 自然을 그리고 ‘碧溪’는 瞬間者로서 쉬지 않고, 흘러 變해 가는 人生을 比喻한 것이다. 自然의 永遠性에 比하여 人生은 너무나 짧은 瞬間的인 存在인 것인데, 이것이 한 번

91) ○ 一石本, 海東歌謠; 一 號明月海東名妓.

○ 周氏本, 海東歌謠; 一 松都名妓號明月.

92) ○ 於于, 柳夢寅, 於于野談; 一 眞伊聞金剛爲天下名山 欲一辯清遊 無可與借.

○ 蛟山·許筠, 惺翁 識小錄; 一 嘗遊山水間 其自楓嶽歷太白 智異至錦城.

93) 出典; 一 珍本 靑丘永言(286), [異本] 校注 海東歌謠(崔南善本과 李熙昇本의 有氏名部 校合本, 132) 崔南善本 靑丘永言(984) 古今歌曲(226) 權花樂府(260) 雅樂府本 女唱類聚(162) 崔南善本 女唱類聚(149) 女唱歌謠錄(122) 樂府(66) 南薰太平歌(38) 大東風雅(127) 詩歌謠曲(61) 奎章閣本 歌曲源流(823)

○ 鄭炳昱, 時調文學事典(서울: 新丘文化社, 1966. 10. 10) p. 482.(2056)

○ 海東小樂府; 一 [漢譯詩] 碧溪水; 靑山影裏碧溪水 容易東流爾莫誇
一度滄溟難再見 且留明月影娉姿

죽어지거나 늙어서 말라 빠지거나 하면은 다시는 道理가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에 될 수 있는대로 즐겁게 놀아야 한다는 것이 遊女 黃眞伊의 持論이다. 다시 말하면 作品속의 永遠과 瞬間이 對照를 이룸으로서 人生의 無常함을 含蓄性있게 表現한 驚歎할만한 詩作 手法인 것이다.

또한 趙雲濟님의 解釋을 빌리면, 여기에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과의 離別의 場面이 始作된다. 明月은 黃眞伊의 妓名이며 碧溪水는 碧溪守라는 當時의 宗親의 한 사람이라는 事實로서, 버리고 가는 사람과 挽留하는 사람이 나타나 있다. (다만 여섯 首가 다 碧溪守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은 分명한 일이다) 男子는 산골 물처럼 앞길을 달려 나가는데 붙드는 女子는 나가서 붙들지 않고 밝은 달처럼 높이 떠서 가만히 있기만 한다. 消極的인 사랑, 受動的인 사랑, 가슴만 태우고 붙들지 못하는 韓國女性의 그윽하고 哀切한 感情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첫째 節에서의 靑山이나 이 節에서 明月을 黃眞伊 自身으로 比喻한 것은 社會的 身分은 낮고, 性格은 消極的이지만 美人으로서 藝人으로서의 強한 自尊心을 나타내며, 그 自尊心이 傷했기 때문에 느끼는 아니꼬움, 그러고도 容恕 하는 寬容을 느낄 수가 있다⁹⁴⁾고 말한다.

한편, 尹榮玉님은 千古의 不變으로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靑山, 그 靑山에서 生成된 碧溪水, 그 兩者는 어쩌면 하나로 合一되어 存在하는 것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의 屬性이 흐르는 것일 때, 이 碧溪水는 다른 물 보다도 더욱 빨리 흐르는 것이 特殊化된 그의 屬性이다. 그래서 詩人은 “수이감을 자랑마라” 하였다. 여기서 對象의 〈動·變〉은 한層 浮刻되어 나타나고 自我는 그것을 否定하고 沮止한다. 中章에서 그 否定·沮止의 根據가 밝혀진다. “一到滄海하면 다시 오기 어려오니”, 이것은 眞理이다. 그 眞理를 比喻로 나타내었다.〈滄海〉는 勿論 〈죽음의 世界〉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 삶과 죽음의 關係와 그것에 對한 詩人의 認識을 읽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詩人의 認識은 終章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明月이 滿空山하니 쉬여간들 엇더리” 여기에 이 詩人의 人生觀이 表現되었다고 생각된다. 明月은 滄海와 關係되는 이미지이다. 滄海가 죽음의 世界, 陰界 곧 어둠의 世界라고 한다면, 이 明月은 삶의 世界, 陽界 곧 밝음의 世界를 表現한다고 할 수 있다. ……中略…… (滿)의 主體語는 明月이다. 그러니, 空山을 가득채운 것은 明月이니, 이 空山에는 삶과 밝음이 가득 찼다는 意味다.

〈空山〉은 곧 靑山인데, 靑山에서 生成된 碧溪水가 “수이가” 버리니 空山일 수밖에는 더 없다. 그래서 “쉬여가기”를 詩人은 懇請한다⁹⁵⁾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時調는 宗室人 碧溪守를 두고 지었다고 傳한다.

는, 이 時調作品에 나오는 ‘碧溪水’(산골짜기를 흐르는 푸른 시냇물)는 그 當時 宗室人의 한 사람이었던 實名人 碧溪守라는 同一音의 사람을 代喩한 것이며, ‘明月’(밝은

94) 趙雲濟, 韓國詩의 理解(弘新新書, 서울:弘新文化社, 1978.12.10) pp. 51-52.

95) 尹榮玉, 黃眞伊詩의 tension, 國語國文學, 第83號(1980.6.8) pp. 309-310.

달)은 黃眞伊 그 女 自身の 妓名을 暗喻한 것이다.(重義法) 碧溪守가 松都名妓 黃眞伊를 意識하고 開城으로 내려간 날 밤 滿月臺 散策길에서 黃眞伊의 誘惑에 걸려든 노래라고 傳한다. 그 女의 卽興의인 詩才와 아름다운 容色에 碧溪守는 그만 現場에서 眩惑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可히 님을 向한 懇曲한 挽留에도 不拘하고 머무를 것 같지 않은 님에 對한 怨望어린 『誘惑歌』(5)라고나 할 것이다.

黃眞伊는 恒常 山과 물의 對立關係에 齟齬되는 삶의 現象을 確認하고, 그러한 山과 물로서 認識과 情緒를 形成化하는 表現技法으로 自我를 사뭇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으며, 詠嘆的, 獨自的, 諦念的으로 自己의 알뜰한 抒情을 가꾸어 가고 있다. 이제 그 現傳하는 黃眞伊의 마지막 時調作品,

어저 내일이야 그릴줄을 모로드나
이시라 흥더면 가라마는 제 구터어
보내고 그리논 情은 나도 몰라 흥노라.⁹⁶⁾ ⑥

아아 내가 한 일이야, 그리워 하게 될 줄을 왜 몰랐단 말인가. 있으라고만 말하고 붙잡았더라면 굳이 임께서 버리고 갔을까만은 보내놓고 나서야 그리워 하는 情은 나도 어인 일인지 정말 모르겠구나.

는, 이 時調作品은 그대도록 사랑하던 임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보내버린 뒤의 애달픈 女心을 스스로 恨歎한 노래이다. 임을 버린 한 애처롭고 서글픈 女人이 겪어야 하는 理性과 感情의 甚한 苦痛과 葛藤的인 對立을 엿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임을 보낸 것은 ิม의 將來를 念慮하고 걱정하는 理性의 作用때문이었다. 그러나, 空然히 임을 보낸 것을 조금도 꾸임이 없는 女人의 淡白한 感情이요 사무치는 情恨인 것이다.

黃眞伊 그 女의 率直한 心情은 임께서 다시 되돌아 온다 하더라도 받아 들이지를 않고, 오직 임을 위해 되돌려 보낼 그런 朝鮮의 착한 女人이었음을 우리는 안다. 分別없는 感情에만 놀아나는 그런 천박한 女子가 아니며, 무엇이 참 사랑인가를 잘 알고있는 賢明한 女人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님이 떠나버린 뒤에야 텅빈 가슴만 쥐여 안고 어깨가 축여지도록 흐느끼며 몸부림 치는 그런 너무나도 東洋的인 女人의 참모습인 것이다. 作者 黃眞伊의 身分은 賤한 官妓女의 몸이었다. 이렇듯 身分은 賤해도 마음만은 多情 多感한 女人이었다. 그러나, 路柳薔花의 몸으로 사랑하는 對象(임) 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님을 불

96) 出典 ; - 珍本 靑丘永言(6), [異本] 校注 海東歌謠(崔南善과 李熙昇本의 有氏名部 校合本, 6) 花源樂譜(17) 李熙昇本 靑丘永言(19) 崔南善本 靑丘永言(16) 雅樂府本 歌曲源流(19) 崔南善本 歌曲源流(16) 서울大學校本 歌曲源流(16) 雅樂府本 女唱類聚(35) 崔南善本 女唱類聚(33) 女唱歌謠錄(34) 樂府(9) 東歌選(9) 詩歌謠曲(14) 奎章閣本 歌曲源流 19,696)

○ 鄭炳昱, 時調文學事典(서울: 新丘文化社, 1966. 10. 10) p. 336.(1427)

잡아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님이 가야만 한다고 뿌리치고 나서면 고운님 보내 드리는 좋은 마음으로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낮빛으로 餓送해 마지 않았다. 萬若에 못간다고 말리고 나서기만 하였더라면 님도 나를 分明히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게 쉽게 떠나 가지는 않았을 것이지마는 떠나 가는 님을 두고 님의 앞길을 막는 것은 事理를 分別할 줄 아는 女子의 할 일이 못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黃眞伊이기 때문에 오히려 님의 마음이 弱해질까봐 걱정스러워 일부러 善善이 보내드려 놓고서 이제와 이렇게 黃眞伊 혼자서 애태우며 그리는 情은 나 自身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일 뿐이로구나. 아아, 나의 한 일은 한탄스러울진저! 이 點에 關해서 趙雲濟님은 말하기를, 積極的으로 볼들었더라면 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못한 自身의 消極性을 後悔하고 反省하는 同時에 不當하게 떠난 님이지만 끝없이 그리워하는 無限한 사랑을 읊고 있다⁹⁷⁾ 고 한다.

또한, 尹榮玉님의 作品分析에 따르면, 初章에서 <어머>는 分明하지 않은 感情表出의 副詞語이다. ……略…… <어머>의 感情內容은 自我가 主體할 수 없을 程度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略…… 이것은 그대로<그릴>에 連結되어 오히려 後悔感, 自責的인 霧圍氣로 물고 잔다. “그릴 줄을 모르던가”는 後悔요 自責이면서, 또 自己矛盾을 나타내 주는 獨白이다. 그래서 그는 自責과 後悔의 明白한 表現으로 中章에서 “이시랴 ㅎ더면 가랴마는”하고 있다. 그리워하는 主體도 自我이고 <가라고>한 主體도 自我이다. 이것은 自己矛盾이다. 그리고, 이 矛盾도 普通的 矛盾이 아니다. “제 구투야”에서 <제>는 自我로도 또 對象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自我로 볼 때, 그 自我를 客觀化시켜 놓고 責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自我의 對立 即 自己矛盾과 自己葛藤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맛볼 수 있다. 語順의 倒置로 보아 “제 구투야”가 더욱 強하게 <가랴마는>을 修飾한다고 보면 (兩者는 다 可能하다) <제>는 對象이 되어 自我의 對象에 對한 影響力을 한 層 強化한다. 이러면 自己矛盾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그런데 <제구투야>는 終章의 初句 <보내고>에도 連結된다. “제 구투야 보내고”는 對象(님)이 自意로 간 것이 아니라 自我가 強要해서 보낸 것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말해서 矛盾덩어리다. 그래서 詩人は “나도 몰라 ㅎ노라”하고 諦念⁹⁸⁾해 버리고 마는 表現 그 自體는 背逆의 理로 高潮된다. 이는 詩人의 情緒의 意志를 理致의 衝突로 빚어내는 『別離歌』(6)의 妙境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우리는 詩人 黃眞伊의 끝내는 이룰 수 없는 사랑끝의 悔恨을 靑山과 碧溪水에 흘러보내려 드는 그 女의 諦觀과 達觀의 遊閑情한 清流의 執癖을 보여주는 노래로 清涼한 二首의 時調作品을 보아온 셈이 된다.

以上에서 우리는 趙雲濟님이 黃眞伊를 가리켜 韓國詩歌文學史上 最高的 詩人⁹⁹⁾ 巨匠이며,

97) 趙雲濟, 韓國詩의 理解(弘新新書, 서울:弘新文化社, 1978.12.10) pp. 52-53.

98) 尹榮玉, 黃眞伊詩의 tension, 國語國文學, 第83號(1980.6.8) pp. 316-317

99) 趙雲濟, 韓國詩의 理解(弘新新書, 서울:新丘文化社, 1978.12.10) p. 60.

黃眞伊의 時調는 英詩나 漢詩같이 世界文學의 또 하나의 金字塔이라고¹⁰⁰⁾ 極讚을 아끼지 않으면서 黃眞伊의 情緒는 自尊心이 강한 女子가 아무 理由도 없이 그 愛人에게 버림을 받고 흐느끼는 諦念·絶望·孤獨, 그리고도 그 愛人을 허물하지 않는 戀慕·寬容, 그리고 忍耐하는 纖細한 感情인 것이다¹⁰¹⁾ 고 말하면서, 黃眞伊의 詩에는 自己와 愛人 둘 뿐이다. 時調라는 짧은 詩型에서 自己와 自己의 世界全部인 愛人만을 담고 있다¹⁰²⁾ 고 말한다.

黃眞伊의 사랑은 失戀한 사랑이다. 現實의으로는 愛人을 잃음으로써 마음에 久遠한 愛人の 像을 얻는¹⁰³⁾ 것으로 되어 있다. 黃眞伊時調에 있어서 自然은 永遠히 繼續되는 데 人生은 그지없이 有限하다는 女人의 恨이다. 그러나, 이러한 恨은 結局 黃眞伊에게 있는 것이지만 黃眞伊의 孤獨은 即 黃眞伊 自身の 傷處받은 自尊心, 버림받은 諦念, 絶望, 孤獨, 그런 데에도 끝없는 戀慕·寬容·忍耐 등의 女性的인 情緒라고 생각한다¹⁰⁴⁾는 것이다. 끝으로, 『黃眞時調論』(六)을 마무리 해서 要約해 보면, 黃眞伊는 그의 時調속에서 對立되는 두 個의 힘을 登場시켰다고 尹榮玉님은 말한다. 하나는 靜的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動的인 것이다. 이들은 各各 女性的인 自我와 男性的인 對象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들은 山과 물로 表象된다. 그래서 自我는 ‘山’에 對象 곧 님은 ‘물’에 隱喻된다. 이 때 Vehicle인 山과 물은 文字로서의 意味 以上을 含蓄하게 된다. 山=自我+不變+靜+女 ……., 물=對象(님)+變+動+男 ……로 그 含蓄의 意味를 읽어 낼 수 있다¹⁰⁵⁾ 말하여 黃眞伊는 그만큼 生動感 넘치는 人間的인 너무도 人間的인 참다운 女性詩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말을 빌리자면 詩는 永遠한 女性的인 소리라지만)를 創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C. 黃眞愛情論

天才의 文學才質과 아름다운 容貌를 兼備하고 태어난 黃眞伊, 그녀에게 있어서 都大體 수줍음이란 아예 없는 그런 女子였다. 그러나, 그녀의 文學的 情熱이나 愛情만은 몹시 뜨거워 그런 女子이었다. 國文學의 바탕을 陶南·趙潤濟님이 말한 것처럼 官妓女 黃眞伊, 그녀의 愛情과 文學은 ‘은근’과 ‘끈기’; 그리고 ‘질탕’함에 集約시킬 수 있겠다. 換言해서 具體的으로 例證하면, 첫째로는, “靑山裏 碧溪水야 ……” (時調)의 宗室人 碧溪守의 誘惑은 『은근의 文學』이며, 둘째로는, “詠半月” (漢詩)의 열레 빛(梳) 달(月)이 되어 안오는 ‘임’

100) 趙雲濟, 黃眞伊의 時調와 韓國詩歌의 傳統 國語國文學, 第41號(1968.9.30) p. 608

101) 上揭同書, p. 605

102) 上揭同書, p. 606

103) 上揭同書, pp. 606-607

104) 上揭同書, p. 608

105) 尹榮玉, 黃眞伊詩의 tension, 國語國文學, 第83號(1980.6.8) p. 316.

을 기다림은 『근기의文學』이고, 세째로는 萬若에 鶴首苦待하고 기다리는 나의 임 ‘어른님’이 오시기만 하면의 假定으로 始作되는 “冬至스들……”(時調) 긴긴 밤에 애타던 九曲肝腸 마음에 맺힌 실움을 ‘어른님 오신날 밤이어든’ 온밤을 고쳐 앉아 萬端情話로 풀으리라는 ‘질탕’함이어라는 『질탕의文學』일시 분명한 것이다.

흔히들 말하기를 黃眞伊의 愛情과文學의 葛藤－, 黃眞伊의 生涯的인 面貌와 黃眞伊의 創作的文學世界에서 느껴지는 愛情과文學의 相反的 乖離現象－은 兩面性으로 나타난듯이 보인다. 官妓女 黃眞伊의 彷徨하던 教坊의 愛情에 犧牲된 甯男性들－이었는데 破戒僧 知足禪師, 名唱 李彦邦(=李士宗), 非名士 碧溪守, 娼妓와의 從遊者 李生 等等－을 싸늘한 웃음으로 餞送하고도 未練없이 돌아서던 妖女 黃眞伊, 그녀의 이와같은 愛情的 變移만이 爛漫한 詩文과 歌舞를 꽃피운 黃眞伊藝術로 昇華된 것이라고 解釋되어 진다. 지금까지 能動的으로 男性들을 籠絡하던 妖艷한 美色 黃眞伊의 모습이 아니라, 甯 男性들로부터 버림받아 괴로와하며 돌아다 봄 없는 떠나버린 ‘임’에 對한 그칠 줄 모르는 戀慕의 情, 그리고 사랑의 다짐만이 그녀의文學作品的 主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黃眞伊의 詩歌作品을 對할 적마다 共感되어 오는 眞實한 사랑의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酒席에서 即興의 技巧로서 이루어졌던 作品이 아니라, 官妓女 黃眞伊 그녀의 眞實한 靈魂에서 올라나온 眞紅色의 絶叫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女性으로서의 人間 黃眞伊의 眞實이 漂白된 眞性の 노래(詩歌)들이라는 點이다. 참다운 人間 黃眞伊의 眞面目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는 누구보다도 強한 外面性을 지니고 있는 同時에 끝없는 渴望의 內面的 世界를 詩로 昇華시켰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이것은 強한듯해 보이는 外面속에 숨겨진 限없는 柔軟함으로 말미암아 黃眞伊의 끝없는 사랑의 源泉的인 魅力의 샘이 되고 있는 것이다. 現實에 對한 憤怒와 男性들에 對한 不信과 悔蔑에 찬 黃眞伊의 行動은 眞實에 있어선 누구보다도 참된 사랑에 安住하기를 哀願했는지도 모를 逆說의 表現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希願은 結局 黃眞伊로 하여금 山水를 즐기는 自然의 품으로 이끌었고, 自然의 품은 人間 黃眞伊에게 神仙처럼 脫俗된 達觀의 境地를 가르쳐 주었으며, 적어도 黃眞伊에게 있어서 自然과 사랑은 하나로 同化되는 法悅이었다. 그것은 바로 脫俗의 人間 黃眞伊가 즐겨 名山大川의 樓臺山水를 노래하던 사랑의 詩歌가 될 것이다.¹⁰⁶⁾

- 106) ① 山은 鬻山이로되 물은 鬻물 안이로다
晝夜로 흐르니 나른 물이 이실소나
아마도 千年流水는 나도 몰라 흐노라.
② 靑山은 내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이져 우러어어 가노고.
- ③ 松都;－ 雪中前朝色 / 寒鋪故國聲 / 南樓愁獨立 / 殘廓暮煙香.
④ 滿月臺懷古;－ 古寺蕭然傍御溝 / 夕陽喬木使人愁 / 煙霞冷落殘僧夢 / 歲月山爭山榮破塔頭 /
黃鳳羽翎能烏雀 / 杜鵑花發牧羊牛 / 神松憶得繁華日 / 豈意如今春似秋.
⑤ 朴淵;－ (前註 參照).
⑥ 詠羊月;－ (前註 參照).

이 純潔한 사랑의 詩歌는 永久不變하는 “靑山은 내 뜻이 ……”의 中章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의 『靑山』과 “靑山裏 ……”의 終章 ‘明月이 滿空山호니 수여간들 엇더리’의 『明月』인 것이다. 卽 靑山은 自然이요, 明月은 黃眞伊로 ‘自然과 나(黃眞伊)’는 變함없는 사랑이요, 적어도 黃眞伊에게 있어서 男性에게 任意로 주어지던 사랑은 永遠히 變치않는 黃眞伊의 사랑일런지도 모른다. 黃眞伊의 文學作品的 主題는 아마도 變치않는 이 自然속에서 抽出된 本質인 『사랑』인 것은 두 말할 必要도 없다.

그러나, 끝까지 채울 길 없었던 黃眞伊의 사랑과 죽음은 還元되어 諦念과 達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찌기 우리 民族史가 蹂躪당할 적마다 스스로 體得한 諦念과 相通하는 佛敎的 思惟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筆者는 敢히 黃眞伊文學藝術에 貫流하는 女性的 諦念과 達觀의 境地를 韓國文學의 本質이라고 말해 두고 싶은 것이다.

Ⅲ. 結 論

已上 至今까지 論及한 것은 文獻上에 나타난 資料記錄에 依해 實存했던 한 女性으로서의 人間 黃眞伊에 關한 傳記的 研究를 通하여 綜合的으로 얻어진 研究結果로 “黃眞伊의 彫刻的 立像”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여 整理해 본다.

于先 I. 緒論에서는, 韓國古代女性史를 概觀하면서 李朝時代의 女流作家들을 社會的인 身分階級을 따라 正室夫人은 閨秀群, 路柳薔花는 妓女群, 副妾婦人은 小室群, 庶孽는 賤女群으로 四分하면서 級問別 女性作家들의 文學的 特性은 어쩔 수 없는 社會的 身分과 詩想的 露出의 對蹠的 方法 때문에 極對의 性格을 띄고 있음을 알아 보았고, 이어서 II. 本論은 黃眞伊에 關한 모든 殘存文獻의 傳記類를 相互比較 分析檢討하여, 黃眞伊에 關한 限眞僞의 虛와 實을 가리기 爲해 記錄的 文面에 스며있는 眞意를 새롭게 把握해 본 結果로 A. 黃眞傳考究에서는 黃眞伊의 出生說(黃眞士之庶女說과 盲人之子說)을 再檢討하여,

1. 黃眞伊의 誕生神話를 두 가지 側面에서 分析한 結果 - , 先研究者 金用淑님의 말대로 黃眞伊는 “進士의 딸도 아니고, 하물며 神仙의 딸도 아닌 庶民層의 그것도 賤한 家門의 私生兒였을 것이다”¹⁰⁷⁾는 見解에 對하여는 全的으로 同感하면서도 黃眞伊 그녀의 生沒年代 推定에 對한 意見은 筆者와 서로 엇갈리고 있다. 金用淑님은 “大概 燕山君 末年頃(1502)에 나서 嘉靖初(中宗 17~18年頃)에 한참 꽃다운 盛名을 날리고 中宗 35年頃(1540)에 40歲 未滿의 젊은 나이에 죽은 것으로 推測되는 것이다”¹⁰⁸⁾고, 했다가 또 “더욱 範圍를 縮

107) 黃在君, 許景樊과 黃眞娘 詩의 對蹠的 世界, 明知語文學, 第14輯(서울; 明知大學 國語國文學科, 1982. 12. 30) p. 106. (金用淑, 朝鮮女流文學의 研究) p. 389)再引.

108) 金用淑, 黃眞伊, 人物韓國史(Ⅲ, 李朝 榮光의 星座, 서울: 博友社)

少해 보면 中宗 6年頃¹⁰⁹⁾에 나서 中宗 36~7年頃¹¹⁰⁾까지 美人薄命이란 말 그대로 많아 야 36, 7 以前에 죽음을 論證해 보이는 바이다”¹¹¹⁾고, 약간 修正하는 듯하다가 아주 “여러 文獻을 比較 考察해 본 結果, 黃眞伊는 嘉靖初¹¹²⁾에 나서 嘉靖末¹¹³⁾에 卒하였음을 論證한 바”¹¹⁴⁾ (筆者傍點)있다고, 말함으로서 筆者와 같은 見解에 到達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무슨 特別한 考證을 거쳐 解決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根據없이 記錄된 文獻은 일찌기 있을 수 없었다¹¹⁵⁾는 前提하에 “嘉靖初” (於于野談集)라는 記錄을 그대로 믿고 『松都記異』傳(竹泉·李德洞)에 登場하는 衙前 胥吏 陳(秀)福의 老父 陳(?) 吏胥에게서 直接 듣고 썼다는 作者의 記述物에는 疑心の 餘地가 있을 수 없음으로 口述 당시 “時八十餘”(松都紀異傳)라는 陳吏胥의 出生年度를 傍證資料로 黃眞伊와 交分關係에 있었던 徐花潭이나 蘇陽谷이라는 歷史의 人物의 生存年代와 對照함으로써 黃眞伊의 出生年度가 記錄대로 “嘉靖初” 即 嘉靖2年¹¹⁶⁾ 즈음으로 假定하더라도 이들 人士들과의 交遊가 可能하고도 充分한 必要條件의 年齡層(前註 36 參照)을 헤아려 본 結果 自然的으로 얻어진 結論인 셈이다.

2. 우리는 男性 專橫의 儒敎社會인 李朝에서 黃眞伊 그녀의 倫理 外的인 青春遊戱(男性이 女性을 籠絡하는 것이 아니라, 反대로 女性이 男性을 籠絡하는 것이다)를 보게 된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天性이 豪放하고 豁達한 性格의 所有者였던 黃眞伊 그녀에게 있어서 花柳界의 妓女라는 自由로운 社會的인 身分을 自請하여 스스로 社會的인 질곡에서 벗어나 解放心理를 驅歌할 수 있는 좋은 機會로 삼았던 것이다. 그녀가 妓門에 들게 된 動機는 두 가지 說로 集約된다. 그 하나는 才色 갖춘 黃眞伊 그녀가 다만 庶女로 태어났기 때문에 家門 좋은 집에 正式으로 出嫁하여 正室夫人으로 幸福하기는 어려운 處地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點이고, 그 다른 하나는 黃眞伊 그녀의 個儻不羈한 性癖 때문이었다는 點을 들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어찌되었던 間에 黃眞伊는 官妓女가 되었고, 自意로 妓女가 된 黃眞伊는 남달리 自己生活에 滿足하면서 自由奔忙한 妓女의 길을 걸어 갔던 것이다. 處女 꽃나이 15歲에 옆집 總角을 相思시킨 妖精같은 黃眞伊, 그녀를 거친 男性列傳에는 開城留守 宋公, 宣傳官 李士宗 (=李彦邦), 金剛山 從遊者 李生, 宗室人 碧溪守, 陽谷 蘇世讓, 破戒僧 知足禪師가 들어 있고, 끝끝내 師弟之間의 誼를 變치않고 黃眞伊로 하여금 저절로 自己 位置를 찾아 未安한 부르짖음으로 松都三絶(絶勝: 朴淵瀑布, 絶倫: 徐花潭, 絶

109) 中宗 6年; - 1511, 正德 6, 卒未. 1965 p. 252 (下段 右에서 縱書 10行~14行)

110) 中宗 36~37年頃; - 1541, 嘉靖 20, 幸丑~1542, 嘉靖 21, 壬寅

111)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 (서울: 淑明女子學校 出版部, 1970. 4. 1) p. 276. (下에서 上으로 3行~끝)

112) 嘉靖初(元年); - 中宗 17, 壬午, 1522.

113) 嘉靖末(44); - 中宗 20, 乙丑, 1565.

114)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70. 4. 1)

115) 筆者는 어떤 文獻上的 誤謬나 錯誤도 理由있는 根據라고 본다.

116) 嘉靖 2年; - 1525, 中宗 20, 乙酉.

色：黃眞伊)을 외치게 했다는 것이다. 實로 黃眞伊 그녀는 倫理 外的인 面에서 自由奔忙한 青春倫理를 즐긴 것이다.

3. 實로 美人은 薄命하다는 말이 眞理인 모양이다. 天下絶色 黃眞伊의 容貌도 神의 시샘으로 40歲 前後¹¹⁷⁾로 꽃떨어진 것이니 臨終무렵에 그녀가 家人들에게 이르기를 黃眞伊가 그토록 좋아하던 山인데도 “山에다 묻지 말고, 못하지 말고, 수의를 갈아 입히지 말라”고 當付하여둔 남다른 遺言을 남기고간 黃眞伊는 참으로 “異人”(許筠)이었다. 中國使臣들도 “汝國有天下絶色”이라고 讚歎을 아끼지 않았던 黃眞伊 그녀는 타고난 傾國의 美色과 清雅한 音曲과 閃光처럼 빛나던 文才로하여 一世를 風靡하고 돌아 갔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戀歌는 開城명 松都 東門밖 長湍 入口 井岷 南쪽 “靑草 우거진 골 ……”(林梯)에 조용히 잠들고 있다.

繼續해서 III. 本論의 B. 黃眞時調論(六)에서는 다시 그 女가 남기고 간 現傳하는 時調作品 總六首를 두 가지 特性別로 나누어 묶어서 1. 戲戀의 熱情(사랑癖)에 屬하는 『艷情歌』로는 ① “冬至스듯 지나간 밤”은 自己를 버리고 간 임을 期約없이 기다리는 朝鮮의 女心이며, ② “내 언제 無心하여 님”은 슴막히도록 悽切한 한 女人의 孤獨을 諦念으로 바꾸어 寬容으로 하여 達觀의 境地에 이르고 있으며, ③ “靑山은 내뜻이오”는 임의 情은 變하여도 黃眞伊 그 女의 사랑만은 變할 理 없다는 自信에 찬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며, 徐花潭 죽음에 對한 『慕情歌』로 ④ “山은 냇山이로되”는 黃眞伊 그 女를 거쳐간 임들에 對한 決然한 姿勢를 읊은 노래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黃眞伊 그 사랑의 對象인 님의 마음은 變할지라도 그 女의 마음만은 變함이 없는 사랑癖의 노래 時調 四首를 단숨에 鑑賞했고, 2. 遊女의 諦觀(淸流辭)에 屬하는 『誘惑歌』 ⑤ “靑山裏 碧溪水야”는 現實적으로 不可可能的 永遠不變의 사랑을 渴求하는 怨訴와 戀幕之情으로 뒤섞인 纖細한 女人의 感情表現 가운데 端的으로 나타나는 破裂된 自尊心의 濃縮이야말로 黃眞伊時調文學의 精髓이고, 마지막 『別離歌』로 ⑥ “어저 내일이야”는 임의 버림을 받고 失戀當했으면서도 한 번 가버린 男子를 허물하거나 탓하지 않는 黃眞伊 그 너그러운 寬容의 世界가 펼쳐지는 極美한 사랑歌의 詩情이다. 이로써, 우리는 詩人 黃眞伊의 끝내는 이룰 수 없는 사랑뒤의 悔恨을 靑山과 碧溪水에 寄託하여 達觀의 境地를 찾으려는 깨끗한 淸流辭의 노래 時調 二首를 덧붙여 鑑賞한 結果로 ‘詩는 永遠한 女性의 소리’라는 Goethe의 말처럼 妓女詩人 黃眞伊는 豁達한 性格에 生動感 넘치는 人間的인 女性詩를 創作해 내던 不朽의 文學藝術家였다. 멋(風流)를 創出하는 偉大한 文學藝術家이었다.

끝으로 黃眞伊의 愛情論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 黃眞伊 그녀는 아예 수줍음 같은 것은 없는 그런 女子였다. 그러나, 黃眞伊 그녀의 文學的 情熱이나 임에게 바쳐지는 愛情만은 몹시 뜨거운 그런 女子였다. 韓國文學의 바탕이 “은근”과 “끈기”에 있다는 陶南·趙潤濟님의 말처럼 黃眞伊 그녀의 愛情과 文學도 一見하여 “은근과 끈기와 질탕”함에 集約시킬 수 있

117) 嘉靖末(嘉靖 42, 明宗 18, 癸亥, 1563 ~ 嘉靖 44, 明宗 20, 乙丑, 1965.)

다고 본다.

碧溪守의 誘惑 『靑山裏……(時調)』는 『은근의 文學』이고, 얼레 빛(流) 달(月)이 되어 아니 오시는 임(牽牛)을 기다림의 『詠半月(漢詩)』는 『끈기의 文學』이며, 鶴首苦待하는 어론님 오시는 날 밤에 『구뽀 구뽀 퍼리라……(時調)』는 萬端情話는 『질탕의 文學』인 것이다. 離別 뒤에 숨은 사랑의 諦念과 絶望과 孤獨과 達觀 이것이 黃眞伊가 보여주는 眞景의 文學世界이다. 적어도 黃眞伊의 文學作品에 있어서의 自然과 사랑은 하나로 同化되는 法悅인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李家源 原著, 王溜山莊詩話, 金敬震 國譯, 韓國歷代漢詩詩話,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刊, 1980. 6. 10.
2. 許蘭雪軒(外), 歷代女流漢詩文選(韓國名著大全集), 金智勇譯, 서울: 大洋書籍 刊, 1975. 9. 15
3. 吳世昌 著, 大東詩選(卷文 12, 名媛 篇), 서울: ? , 1978. 3. 10 23 p. 24 p.
4. 呂文社 編輯部 編, 韓國의 人物, 서울: 呂文社, 1972. 12. 10
5. 鄭漢淑 作, 黃眞伊(長篇小說), 서울: 正音社, 1955. 10. 20
6. 李丙斗 譯, 韓國歷代名詩全書(史文學叢書), 서울: 文獻編纂會 出版部 刊 1959. 8. 15
7. 李秉岐, 黃眞伊의 藝術, 韓國學研究叢書(一), 서울: 成進文化社, 1975. 3. 10
8. 李信馥, 韓國妓流文學研究, 論文集, 第 11 輯(人文社會科學 篇), 檀國大學校, 1977. 12. 31.
9. 劉昌惇 著, 國文學史要解, 서울: 明世堂, 19
10. 서울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編, 國語國文學辭典, 서울: 新丘文化社, 1974.
11. 崔長洙 著, 古時調解說, 서울: 世運文化社, 1977. 5. 1
12. 梁柱東 編, 詳註 國文學古典讀本, 서울: 博文出版社, 1953. 4. 30
13. 鄭炳昱 編著, 時調文學辭典, 서울: 新丘文化社, 1966. 10. 5
14. 金智勇, 韓國(古代)女性文學史研究(一), 論文集, 第 4 輯, 首都女子師範大學, 1969. 8. 5
15. 李家源 著, 韓國漢文學史, 서울: 民衆書
16. 鄭桓根 譯編, 漢詩名作選, 서울: 正民社, 1981. 3. 5
17. 學園社 編, 大百科辭典(6), 서울: 學園社, 1959. 5. 30
18. 全圭泰 著, 韓國古典文學의 理論, 서울: 正音社, 1966. 9. 15
19. 黃浪江·蘇在英·奏東赫 共編, 韓國文學作家論, 서울: 螢雪出版社, 1977. 9. 20
20. 趙雲濟 著, 韓國詩의 理解, 서울: 弘新文化社, 1978. 12. 10
21. 趙雲濟 著, 黃眞伊의 時調와 韓國詩歌의 傳統, 國語國文學, 第 41 號, 國語國文學會 刊, 1968. 9. 30
22. 金用淑 著,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刊, 1970. 4. 1
23. 金用淑 著, 閨怨과 別恨考, 亞細亞女性研究·第 21 輯, 淑明女子大學校, —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刊, 1982. 12. 30
24. 金用淑 著, 李朝女人像研究, 淑明女子大學校, 研究論文集, 第 7 輯, 1972. 12.
25. 金用淑 著, 李朝女流文學의 特質, 亞細亞女性研究, 第 14 輯, 淑明女子大學校 — 亞細亞問題研究所 刊, 1975. 12.

關東語文學 第4輯

26. 金秀天 著, 韓國歷代漢詩新譯, 江陵: 文旺社, 1966. 3. 15
 27. 朴乙洙 著, 時調詩話, 서울: 成文閣, 1979. 3. 31.
 28. 林性哲, 黃真伊의 文學과 愛情觀의 考察, 文理論叢, 第2輯, 建國大學校 文理科大學 學生會·聯合學會 刊, 1973. 8. 31
 29. 金東旭, 李朝妓女史序說(士大夫와 妓女), 亞細亞女性研究, 第5輯, 淑明女子大學校 — 亞細亞問題研究所 刊, 1966. 12. 30
 30. 人物韓國史編纂會 編, 人物韓國史(Ⅲ) — 李朝·榮光의 星座 —, 서울: 博文社, 1965. 4. 15
 31. 金成得 著, 韓國古典女流文學論考, 서울: 光林社, 1974.
 32. 尹榮玉, 黃真伊의 tension, 國語國文學, 第83號, 國語國文學會 刊, 1980. 6. 8
 33. 金智勇, 女性文學의 質量, 國語國文學, 第61號, 國語國文學會 刊, 1973. 7. 30
 34. 李相寶, 女流時調作家論, 國語國文學, 第14輯, 國語國文學會 刊, 1955. 2. 15
 35. 閔炳薰 編, 朝鮮歷代女流文集, 서울: 乙酉文化社, 1950.
 36. 白龜鉉 編, 歷代女流詩歌選, 서울: 學藝社, 1969.
 37. 李能雨, 李朝女流作品의 特殊性, 現代文當, 第7號, 서울: 現代文學社, 1955. 7.
 38. 李能雨, 李朝의 女流作品 및 女流時調의 解說, 淑大月報,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1955. 10.
 39. 趙正淑, 國文學史上으로 본 女流의 系譜, 青坡文學, 第2輯, 서울: 淑明女子大學校, 1960. 3
 40. 鄭太允, 李朝女流誌文學에 나타난 情恨, 聖心語文論集, 第3卷, 第9輯, 1972.
 41. 崔榮鑽, 李朝女流作品小論, 國文學研究, 第1輯,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1958. 9.
 42. 張德順, 韓國의 사모 黃真伊, 韓國의 人間像(韓國傳記全集), 第3卷(文學藝術家篇), 서울: 新丘文化社, 1965. 4. 10.
- 黃淳九 著, 青丘永言研究, 서울: 금방울사, 1980. 1. 20
 - 燃藜室記述, 中宗誌, 韻濩堂集, 松都紀異, 朝野彙言 西浦漫筆,
 - 惺翁, 識少錄, 於于野談, 珍本 青丘永言, 崧陽耆舊傳, 破睡錄, 順菴雜書
 - 清脾錄, 錦溪筆談, 水材漫錄(以上 原文 再引 古典籍)*
 - 黃在君, 許景樊과 黃真娘 詩의 對蹠的 世界, 明知語文學, 第14號, 서울: 明知大學, 1982. 12. 30